

서론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포상의 경험은 긍정적인 자아관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포상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제도의 존재 자체가 청소년에게 목표설정 기능을 통한 강한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상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 포상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포상제도 중에서 특히 문화체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범청소년상 제도”의 운영현황을 개관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모범청소년상” 제도는 대부분의 포상제도가 민간 단체, 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청소년육성이 지향하는 청소년상의 정립과 청소년육성의 정책방향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행은 여타의 청소년 포상제도의 방향설정에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청소년 포상제도에 관한 국내외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련 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주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외국의 포상제도(에딘버러공작 포상계획) 사례를 자료편에 수록하여 연구 및 정책 수립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 제도운영 현황과 문제

1. 포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포상제도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제도의 목적과 설립 취지를 가장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먼저 몇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포상제도의 유형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청소년에 대한 포상제도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포상제도의 성격과 특성을 비교·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 운영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추출해 내고 그에 기초한 유형화작업이 필요하다. 포상제도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서는 크게 제도 운영의 주체, 포상 대상의 범위, 포상대상의 선정기준, 포상의 내역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 운영의 주체: 포상대상자를 선발·심사하고 표창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관하는 담당기관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장하는 “정부주도형”, 민간의 기업·재단 등이 주관하는 “민간주도형”, 포상제도 운영 자체만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상설법인형”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주도형의 제도는 포상의 대상과 영역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반면, 다른 두가지 유형은 특수한 목적하에 설립·운영되어 포상의 대상과 영역이 제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2. 포상대상의 범위: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는가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 그리고 이 양자의 중간형태인 “제한적 개방형”의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개방형”은 연령,

국적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구비한 모든 사람을 포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폐쇄형”은 포상의 시점에서 특정 단체나 기관의 소속된 성원들만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제한적 개방형”은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인데, 원칙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포상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지만 일정한 기준하에 포상후보자로 등록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방법이다.

3. 포상대상의 선정기준 : 포상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구비한 대상자들의 어떤 특성을 심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가의 문제이다. 후보자의 심성, 생활태도 등 정의적 특성을 중시하는 “품성중시형”, 재난, 위기상황 등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난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행적중시형”,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분야의 재능과 자질에 기초하여 포상하는 “기능·자질형”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모범청소년상은 이 세가지 기준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형태의 포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1: 포상제도의 유형구분

구 분	유 형	비 고
포상·운영의 주체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상설법인형	모범청소년상 - 정부주도형 - 개방형
포상대상의 범위	개방형 제한적 개방형 폐쇄형	- 품행·행적중시형 - 물질적 보상형
포상대상 선정의 기준	품행중시형 행적중시형 기능·자질개발형	에딘버러 포상계획 - 상설법인형 - 제한적 개방형
포상의 형태	물질적 보상형 제도적 보상형 명예부여형	- 기능·자질 개발형 - 명예부여형

4. 포상의 내역: 포상자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보상을 하는가에 따라서 “물질적 보상형” “제도적 보상형” “명예형”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물질적 보상형은 상금, 상품 등의 구체적인 보상이 일시적

로 주어지는 반면, 제도적 보상형은 진학, 진급시의 혜택 등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형태의 제도적 보상이 주어진다. 반면에 명예형은 수상을 통한 사회적 위세와 같은 무형의 보상이 제공될 뿐이다. 명예형은 해당 포상제도의 의의와 권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행과 같은 “대한민국 모범청소년상”으로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장한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포상대상인 9세부터 24세까지의 전체 청소년을 포괄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사회에 진출한 청소년에게 “장한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의 일반관행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의 “모범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모범”이라는 용어는 미래를 개척하는 전향적인 의미보다는 현실순응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용어는 일종의 비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접촉한 상당수의 청소년지도자들이 현행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였고, 새로운 명칭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는 “미래지향성” “진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과연 현행과 같이 정부(문화체육부)가 직접 제도의 전 과정을 관장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제도운영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역할에 머물고 공신력있는 전문기관 또는 새로운 상설법인을 설립하여 위탁운영 (“민간주도형” 또는 “상설법인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상설법인의 설립은 제한된 예산 규모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전문단체나 기관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그 대안으로서 거론되었으나, 전자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상 포상제도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점, 후자는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인구의 10%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의지와 정책방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운영방식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으나, 다른 포상제도와의 차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셋째, 포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모범청소년상의 역대 수상자 내역을 검토해보면 앞서 지적한 대로 품행, 행적, 기능·자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체육이나 문학, 문학 등 예술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올린 청소년과 가정적·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업적에 대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사회의 특수한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청소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평범한” 청소년이라기 보다는 전체 인구 중 소수에 불과한 “특수한” 환경의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포상제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성취동기 부여의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위의 두가지 유형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통수준의 생활환경과 재능·자질을 보유한 일반 청소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뛰어난 재능과 자질로 인하여 이미 사회적 명예를 누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시상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포상”으로서 기회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포상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포상부문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체육, 문화,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등 6개 부문에 걸쳐 시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체육청소년부 당시의 청소년 육성지표(용기, 예절, 협동, 긍지)와 현재 소관부서인 문화체육부(체육, 문화)의 업무영역을 반영한 절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활동의 영역(체육, 문화)과 덕목의 영역이 원칙없이 혼재해 있어 전체적인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각 부문별 선정의 기준이 과도하게 추상적이며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고 상호중복되는 부분도 많아서 실무자들이 기준의 적용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섯째, 포상시기 및 회수의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매년 1회, 5월에 시상식을 거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포상제도가 연 1회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보다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연 1회 정례적인 시상 이외에 연중 시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

점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사고, 행사 등을 통해 선행, 미담의 주인공이 되는 청소년이 나타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포상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의지를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후보자 추천-심사과정 및 포상인원 조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높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표 3: 모범청소년상의 포상부문

부 문	기 준
1. 체육부문	남다른 의지와 성실로 각종 체육활동에 임하여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하거나,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행실이 뚜렷하고, 장래 우리나라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촉망되는 청소년
2. 문화부문	남다른 정성으로 문화, 음악, 미술 등 예술 및 취미활동에 임하여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함으로써 장래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촉망되는 청소년
3. 용기부문	이 시대가 요청하는 정의감과 자기희생의 정신을 책임있게 실천함으로써 장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전력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예절부문	웃어본과 어버이를 공경하고 형제간 우애 및 모든 사람에게 정직과 신의로 대하는 예의범절과 선행이 뚜렷한 청소년
5. 협동부문	희생과 봉사 및 협동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율과 근검으로써 몸소 실천하는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여 장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
6. 긍지부문	투철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바탕으로 전통 수호 및 계승, 통일 의지, 대외활동을 통한 국위선양 등으로 반공, 애국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사랑의 행적이 뚜렷함으로써, 장차 민주복지국가의 시민이 될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귀감이 되는 청소년

여섯째, 앞서의 연중 시상제도 방식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서 포상인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년에 시상인원은

36 명에 불과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상하는 인원을 합쳐도 100 명을 넘지 못한다. 포상인원을 소수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경우이나 가능한 일이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포상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또한 연중 시상제도를 채택할 경우 포상인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일곱째, 포상자에 대한 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자 전원(36 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포상자의 대부분이 학생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포상경력이 진학, 취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상형”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교육개혁의 움직임에 따라 대학 신입생 전형에서 생활기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포상경력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고 특별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포상인원이 대폭 확대될 경우 모든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예산상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적 보상형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범청소년상 제도가 시행된지 5 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업무 담당자들과 일부 청소년관련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보완 못지 않게 일반 국민과 유관기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모범청소년상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참고할만한 대표적인 외국의 포상제도로써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 포상계획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1956 년에 창설되어 현재 영국과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55 개국에서 연인원 200 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모범청소년상과 대

조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범청소년상이 “정부주도형” “개방형” “품행·행적중시형” “물질적 보상형”이라면, 에딘버러 공작 포상계획은 “상설법인형” “제한적 개방형” “기능·자질 개발형” “명예부여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 계획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공공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모든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신청에 의거 활동기록부를 발부받은 사람만을 포상의 대상으로 하고, 품성이나 행적보다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달성한 성취도가 심사의 기준이 되며, 일체의 부상이 주어지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의 메달이 수여될 뿐이다. 그러나 특별한 재능이나 자질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강한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교수업에서 결여되기 쉬운 덕목과 기능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포상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융통성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 에딘버러 공작 포상계획 개요

대 상 :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청소년		
활동부문 : 봉사, 탐험, 기능,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의 4 개부문		
운영방식 : 각 부문별로 마련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정을 이수한 뒤 일정한 기준(향상도)을 충족하는 청소년에게 메달 수여(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포상의 내용과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포상내역
초급단계 Bronze Level	일정기간 내 평균 15 시간의 전문적인 훈련과정 이수 또는 3 개월간의 현장활동	메달 수여
중급단계 Silver Level	15~ 30 시간의 전문적인 훈련과정 이수 또는 6 개월간의 현장활동	메달 수여
고급단계 Gold Level	50 시간의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9~12 개월간 현장활동	메달 수여
운영실태 : 1956 년에 창설되어 현재 영국과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55 개국에서 연인원 200 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		

물론 우리와는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시행·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

가능하다. 그러나 모범청소년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운영사례는 좋은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에딘버러 공작 포상계획의 골격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고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편에 소개되어 있다.

II.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청소년 포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앞장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그 바람직한 개선방안의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모범청소년상 제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청소년관련 업무 종사자로 국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육성업무의 주요영역인 수련활동, 교육, 행정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지도 업무에 임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교사, 공무원(청소년관련 부서 근무자) 집단으로 국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지도 및 행정의 현장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종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높은 관심과 사전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사전설명이나 오리엔테이션이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에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자계식 방식으로 청소년지도자는 집단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의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참여자) 방식과 우편조사 방식을 병행하였고, 교사와 공무원 집단은 우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도사 연수과정 참여자는 대부분 현직 청소년단체·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었지만 일부 교사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교사, 공무원 집단으로 재분류되었다. 조사는 1995년 8월 2일에서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80 매였는데 자료선별 작업을 거쳐 370 매가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의 구성을 보면, 각 변인별로 남자(성별), 30대 이하(연령), 청소년지도자(직업), 시군부(거주지)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구체적인 구성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표본의 구성

		사례수	비율 (%)
전	제	432	100.0
성 별	남 자	321	74.3
	여 자	111	25.7
연 령	30 대 이하	230	53.2
	40 대	150	34.7
	50 대 이상	52	12.0
직 업	지도자	212	49.1
	교 사	140	32.4
	공무원	80	18.5
거주지	서 울	150	34.7
	광역시	99	22.9
	시군부	249	57.6

설문조사가 완료된 뒤에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설문조사 응답자 중 25 명에 대해서 다시 전화 인터뷰의 방식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총 7 개 영역의 41 개의 문항(객관식 34, 주관식 7)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1)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2) 포상인원의 배분방식, 3) 포상의 내역(부상), 4) 포상의 부문, 5) 후보자 추천자격, 6) 심사위원 구성방식, 7) 제도운영방식에서 각 5 개씩 35 문항과 성, 연령, 직업 등 배경변인 6 가지이다.

본 조사는 모집단(청소년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규모가 불명확하여 청소년지도자, 교사, 공무원의 세 하위집단으로 한정하였고 표본의 추출이 임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업무 종사자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분석에 있어서 설문응답 결과는 포상제도에 대한 청소년업무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만 활용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통한 보완조사의 결과가 결론의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밝혀둔다.

2. 조사결과

1) 포상자 선정기준

어떤 청소년을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할 것인가는 제도의 기본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포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해 역대 수상자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음 세가지의 특성유형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번째는 개인의 선·후천적 능력을 중시하는 “재능·자질형”, 두번째는 개인의 가정적·사회적 환경을 중시하는 “불우환경형”, 세번째는 도덕적 관점에 입각한 “행동·품성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유형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1 안 (재능·자질형): 예술, 체육,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자질을 발휘한 청소년

2 안 (불우환경형): 어려운 가정환경, 신체장애 등 불우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소년

3 안 (행동·품성형): 평범하면서도, 행동이나 품성의 면에서 다른이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포상자 선정기준 : 재능·자질

먼저 개인의 재능과 자질을 기준으로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0%가 찬성을 표시하였고, 반대의견은 2 할에도 못미쳤다. 이것은 대다수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모범”의 개념을 전통적인 도덕적 관점에 머물지 않고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유형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찬성율에 있어서 30 대, 40 대, 50 대의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개인의 재능과 자질을 중요한 포상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청소년지도자의 찬성율이 가장 높았고,

공무원과 교사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찬성율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 1 안에 대해서는 여자, 30 대, 청소년지도자 집단의 찬성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 1: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재능·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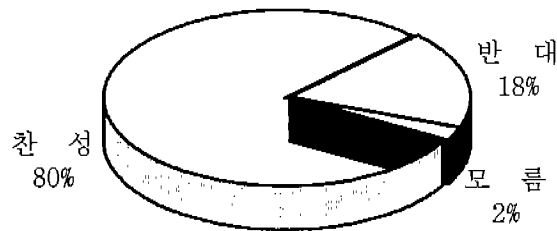


표 6: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재능·자질

		반 대	모 림	찬 성
성 별	남 자	18.5	3.1	78.5
	여 자	20.0	-	80.0
연 령	30 대	18.4	-	81.6
	40 대	17.9	3.6	78.6
	50 대	20.0	6.7	73.3
직 업	지도자	12.1	3.0	84.8
	교 사	23.3	3.3	73.3
	공무원	22.2	-	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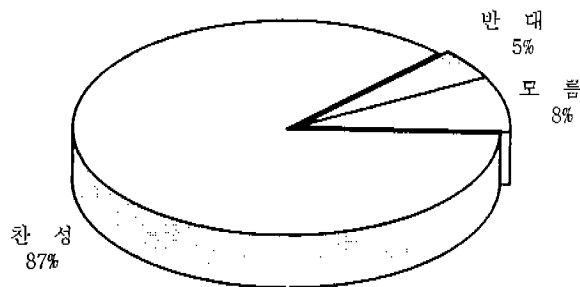
예술, 체육,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의 역할모델이 되어 그들에게 강한 성취동

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상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이미 해당분야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명예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포상하는 것은 전체 청소년에게 골고루 시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기회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재능·자질의 단일 요인만을 고려하여 시상하기 보다는 가정환경이나 행동·품성 등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상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포상자 선정기준 : 생활환경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신체장애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생활환경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사회의 복지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궁핍이나 신체적 장애등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생활환경을 포상의 기준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다수인 87%가 찬성의 뜻을 표시하였고, 반대의견은 5%에 불과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남자는 90.8%가 포상의 기준으로서 생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반면, 여자는 73.3%에 불과하여 찬성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30 대의 찬성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 2안에 대해서는 남자, 30 대, 청소년지도자 집단의 찬성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7: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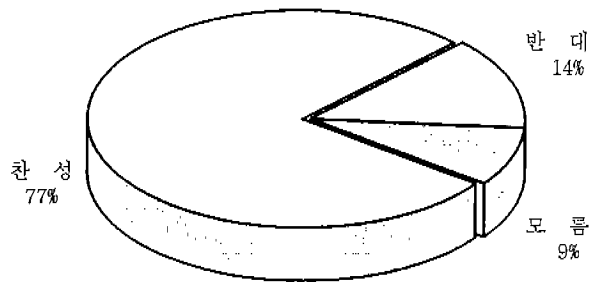
		반	대	모	름	찬	성
성 별	남 자	3.1		6.2		90.8	
	여 자	13.3		13.3		73.3	
연 령	30 대	5.3		5.3		89.5	
	40 대	3.6		10.7		85.7	
	50 대	6.7		6.7		86.7	
직 업	지도자	9.1		3.0		87.9	
	교 사	3.3		16.7		80.0	
	공무원					00.0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포상함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그 포상의 효과가 일시적·전시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정액의 포상금이나 상장 수여는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명예가 되고 자극을 줄 수 있으나, 경제적 궁핍, 신체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포상대상 청소년의 유형별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포상자 선정기준 : 행동·품성

우리의 일상적인 용례에 따르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특별한 행적이거나 선행을 가르켜 타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행동·품성 요인은 가장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모범청소년상 포상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포상기준으로서의 행동·품성요인에 대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77.5%의 지도자들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 1 안(재능·자질)의 찬성율(79.5%)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반대 비율은 13.8%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행동·품성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찬성율이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중간층인 40 대의 찬성율이 30 대나 50 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의 찬성율이 83.3%로서 가장 높았고, 일선 청소년지도자가 72.7%로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 3 안(행동·품성)에 대해서는 남자, 40 대, 공무원 집단의 찬성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표 8: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행동·품성

		반	대	모	름	찬	성
성 별	남 자	15.4		6.2		78.5	
	여 자	6.7		20.0		73.3	
연 령	30 대	13.2		13.2		73.7	
	40 대	7.1		7.1		85.7	
	50 대	26.7				73.3	
직 업	지도자	12.1		15.2		72.7	
	교 사	13.3		6.7		80.0	
	공무원	16.7				83.3	

포상기준으로서의 청소년의 행동·품성 요인은 앞서의 재능·자질, 환경의 두가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계가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과연 어떤 행동을 선행으로 간주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의 품성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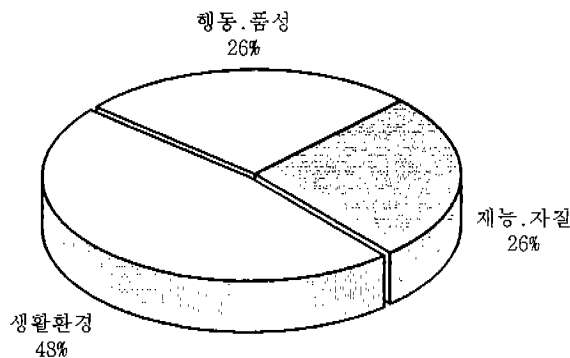
개인보다는 가문과 국가가 중시되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미덕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잔존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상황에서 자신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의미의 충효의 윤리를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상황에 적합한 바람직한 청소년의 행동·품성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이 전제될 때에만 포상의 의의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예상

앞에서 제시한 세가지 포상기준 중 결국은 어느 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가를 지도자들에게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생활환경이 48%로서 가장 다수였고, 행동·품성과 재능·자질은 모두 26%로서 이에 월

쥔 못미쳤다. 이것은 앞서의 각 안에 대한 응답경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응답자들이 현재 모범청소년상의 포상주체가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불우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이 가장 중시되리라고 예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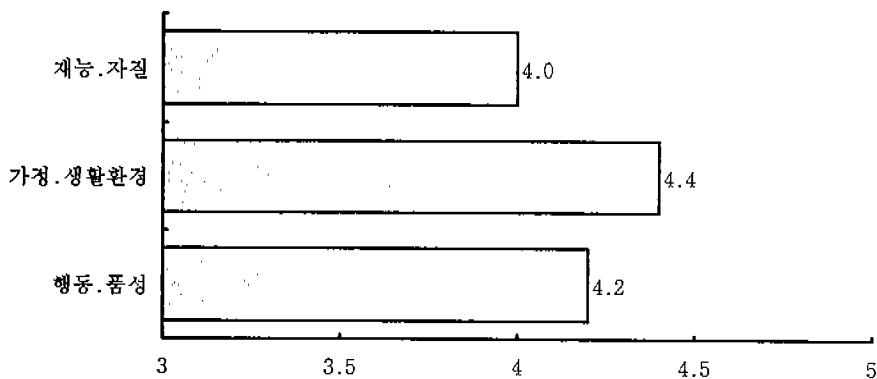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자들은 전체 평균과 거의 일치하는 응답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여자는 생활·환경 요인에 대한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행동·품성요인에 대한 응답율이 전체 평균에 못미치는 점이 두드러진다. 각 연령층별로는 재능·자질요인은 30 대, 생활환경요인은 40 대, 행동·품성요인은 50 대에서 각각 타연령층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직업별로는 재능·자질요인에 대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이 40% 이상의 응답율을 보인 반면, 교사와 공무원집단의 응답율은 16% 남짓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생활환경 요인에 대한 청소년지도자들의 응답율은 교사, 공무원 집단의 1/2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주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활동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예상

		재능·자질	생활환경	행동·품성
성 별	남 자	26.2	46.2	27.7
	여 자	26.7	53.3	20.0
연 령	30 대	31.6	44.7	23.7
	40 대	21.4	53.6	25.0
	50 대	26.7	40.0	33.3
직 업	지도자	42.4	30.3	27.3
	교 사	16.7	56.7	26.7
	공무원	16.7	61.1	22.2

세가지 요인에 대한 지도자들의 선호도를 서열화하여 파악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지도자들의 응답을 계량화하여 얻은 평균값¹을 비교해보면, 가정·생활환경 요인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행동·품성 요인이 그 다음이었으며, 재능·자질 요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포상기준에 대한 응답자들의 예상과 일치하였다.

그림 5: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각 안 비교



¹ “매우 찬성” - “찬성” - “잘 모르겠다” - “반대” - “매우 반대”의 5 점 척도에 각각 5 ~ 1 의 점수를 부여하여 구한 평균값임.

위의 세가지 안 중에서 가정·생활환경과 재능·자질은 포상기준으로서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능·자질의 경우에는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능·자질의 사유로 수상한 청소년들은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 국제대회 등의 입상자로서 이미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명예와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들에게 다시 국가가 상을 주는 것은 동일한 행위 또는 업적에 대한 "이중포상"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술, 체육 등의 업적은 개인의 노력 못지않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주변환경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업적만을 기준으로 시상하는 것은 대다수의 일반 청소년들에게 위화감을 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1), 2), 3)안 중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재능·자질만을 기준으로 하여 시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 포상인원의 배분

현재 대한민국 모범청소년상의 추천 및 포상인원은 각 시·도별로 균등하게 안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포상자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이 상의 취지에 적합한 청소년이 지역별 할당량에 묶여 수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현행의 방식과, 청소년의 하위유형별로 인원을 할당하여 선발하는 방안, 포상인원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심사기준에 따라서만 선발하는 방안의 세가지 안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 1 안 : 각 시, 도별로 일정한 인원을 정해놓고 선발한다.
- 2 안 : 학생, 근로청소년 등 청소년의 유형별로 일정인원을 정해 놓고 선발한다.
- 3 안 : 인원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포상인원의 배분 : 시도별

먼저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현행의 방식에 대해서 과반수를 상회하는 56%의 지도자들이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반대하는 응답도 39%로 나타나,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현행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찬성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50 대의 찬성율이 가장 높고, 30 대가 가장 낮아서 높은 연령집단일수록 지역별 배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지도자나 교사집단보다 찬성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림 6: 포상인원의 배분 - 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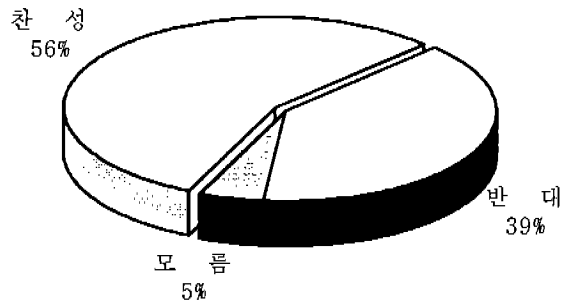


표 10: 포상인원의 배분 - 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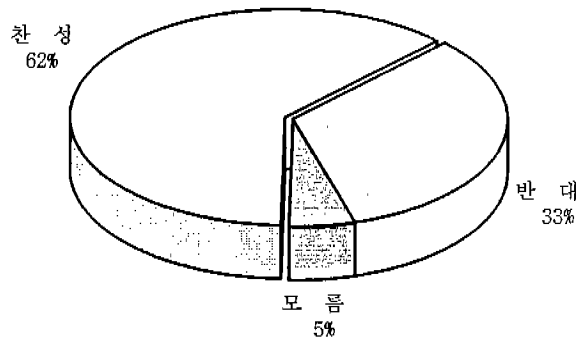
		반 대	모 름	찬 성
성 별	남 자	39.1	6.3	54.7
	여 자	40.0		60.0
연 령	30 대	44.7	2.6	52.6
	40 대	37.0	7.4	55.6
	50 대	26.7	6.7	66.7
직 업	지도자	39.4	6.1	54.5
	교 사	37.9	6.9	55.2
	공무원	38.9		61.1

포상인원의 배분 : 청소년유형별

포상인원을 유직·무직, 재학·비재학 등 청소년의 하위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62%로서 제 1 안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고, 반대응답은 3 할 남짓한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은 포상

인원의 배분에 있어서 현행의 시도별 배분보다는 하위유형별 배분을 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포상인원의 배분 - 청소년유형별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찬성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중간층인 40 대의 66.7%가 찬성하여 30 대와 50 대의 찬성율을 앞섰다. 한편 직업별로는 공무원의 찬성율이 지도자, 교사에 비해 10% 이상 높은 점이 주목된다.

표 11: 포상인원의 배분 - 청소년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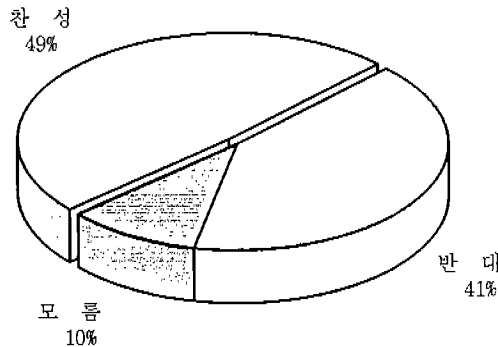
		반 대	모 립	찬 성
성 별	남 자	34.4	4.7	60.9
	여 자	26.7	6.7	66.7
연 령	30 대	36.8	2.6	60.5
	40 대	25.9	7.4	66.7
	50 대	33.3	6.7	60.0
직 업	지도자	33.3	6.1	60.6
	교 사	37.9	3.4	58.6
	공무원	22.2	5.6	72.2

앞서 시도별 배분방식에 대한 문항에서도 공무원집단의 찬성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공무원들이 현행 모범청소년상 수상인원의 배분방식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포상인원의 배분 : 구분없이

포상인원을 지역이나 하위유형 등을 기준으로 미리 할당하지 않고 전체 인원만 정해 놓고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49%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41%에 달하였다.

그림 8: 포상인원의 배분 - 배분하지 않음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자의 찬성율이 여자의 배 이상에 달하는 54%였고, 연령층에 있어서는 50 대의 찬성율이 57.1%로서 가장 높은 반면, 30 대가 42.1%로 가장 낮아서 높은 연령집단일수록 이 방식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교사 집단의 60%가 찬성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다음이 공무원이었고 (50.0%), 청소년지도자의 찬성율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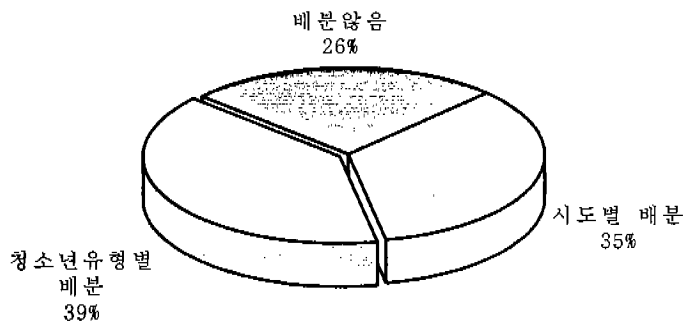
표 12: 포상인원의 배분 - 배분하지 않음

		반 대	모 름	찬 성
성 별	남 자	36.5	9.5	54.0
	여 자	60.0	13.3	26.7
연 령	30 대	50.0	7.9	42.1
	40 대	25.9	18.5	55.6
	50 대	42.9		57.1
직 업	지도자	45.5	15.2	39.4
	교 사	32.1	7.1	60.7
	공무원	44.4	5.6	50.0

포상인원의 배분 : 예상

포상인원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자들의 예상을 조사해 본 결과, 청소년의 하위유형별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응답이 39.7%로서 가장 많았고, 시도별로 배분되리라는 응답이 34.6%로서 이에 조금 못미쳤고, 별도의 기준없이 이루어지리라는 응답이 25.6%로서 가장 적었다.

그림 9: 포상인원의 배분 -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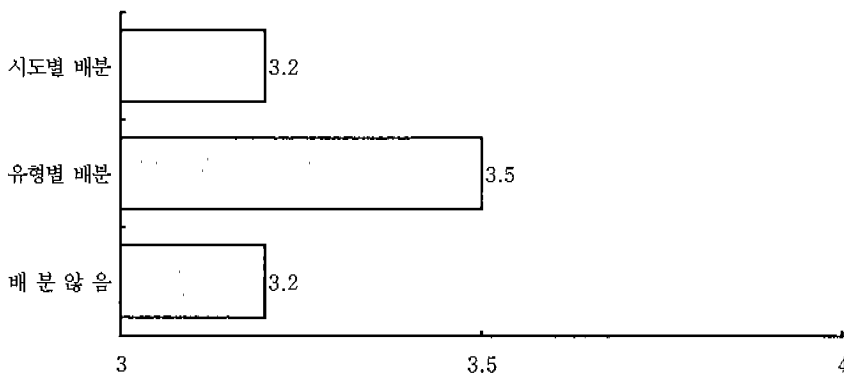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도별 배분과 유형별 배분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가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자는 시도별 배분방식, 여자는 유형별 배분방식에 대한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별 응답결과에서는 30 대와 50 대의 응답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40 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유형별 배분에 대한 응답율이 두드러지게 높고 시도별 배분은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집단은 제 3 안에 대한 응답율이 가장 낮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유형별 배분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표 13: 포상인원의 배분 - 예상

		시도별	유형별	배분없음
성 별	남 자	36.5	36.5	27.0
	여 자	26.7	53.3	20.0
연 령	30 대	39.5	39.5	21.1
	40 대	23.1	46.2	30.8
	50 대	40.0	33.3	26.7
직 업	지도자	33.3	42.4	24.2
	교 사	35.7	32.1	32.1
	공무원	33.3	50.0	16.7

그림 10: 포상인원의 배분 - 각 안 비교



현재의 포상인원 배분방식은 1)안과 유사한 형태로서 각 시도별(청협 포함)로 동일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장관표창자 선정에도 시

도별 안배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각 시도별 인구분포를 무시함으로써 기회의 불평등의 소지를 안고 있고, 각 시도별 업무담당 부서의 추천재량권을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도 시도별 일률적인 인원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먼저 추천인원의 배정은 각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배정한다(예 : 각 시도별로 5 ~ 20 명선)
- 포상인원 배정 : 포상자 심사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별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경우 필연적으로 각 시도별로 추천인원 및 포상인원이 달라지는 등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① 모범청소년의 선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특성 및 자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지역적 안배때문에 훈격이 달라지거나 탈락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이 빚어져서는 안되며, ② 보다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각 시도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3) 포상의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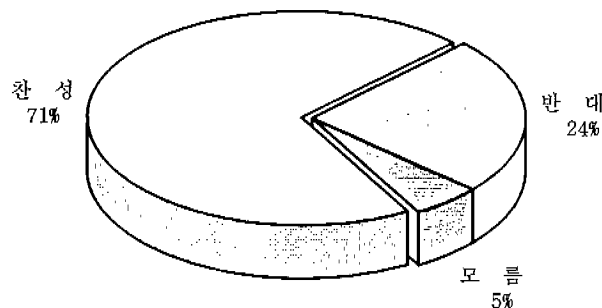
모범청소년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으로서 현행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진학, 취업 등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별도의 부상을 주지 않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 1 안 : 일정한 액수의 상금이나 장학금 또는 물품 등의 부상을 준다.
- 2 안 : 진학, 취업 등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3 안 : 수상 자체가 정신적인 보상이 되므로 별도의 부상은 주지 않는다.

포상의 내역 : 상금·물품

먼저 수상자에 대해서 상금(장학금) 또는 물품을 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1%가 찬성을 표시하였고, 반대는 24%로서 전체의 1/4 에 조금 못미쳤다.

그림 11: 포상내역 - 상금·물품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의 찬성율이 남자보다 다

소 높은 편이었고 연령층별로는 가장 연장집단인 50 대가 30, 40 대보다 10% 이상 찬성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교사집단이 반대응답이 34.5%에 달하여 가장 부정적인 응답경향을 나타내었고, 공무원집단은 88.9%가 찬성한 반면, 반대응답은 1 할 남짓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14: 포상의 내역 - 상금·물품

		반 대	모 름	찬 성
성 별	남 자	25.0	4.7	70.3
	여 자	20.0	6.7	73.3
연 령	30 대	31.6		68.4
	40 대	22.2	7.4	70.4
	50 대	6.7	13.3	80.0
직 업	지도자	21.2	9.1	69.7
	교 사	34.5	3.4	62.1
	공무원	11.1		88.9

포상의 내역 : 제도적 혜택

모범청소년상 수상자에 대하여 현행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방식 이외에 진학, 취업등에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찬성응답이 77%에 달하여 현행 장학금 지급방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반대의견은 2 할에 못미치는 18%로 나타났다.

수상자들에게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의 82.8%가 찬성한 반면, 여자는 찬성율이 53.3%에 불과하여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층별로는 응답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집단의 찬성율이 88.9%로서 가장 높았고, 교사와 지도자 집단의 찬성율은 80%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림 12: 포상의 내역 - 제도적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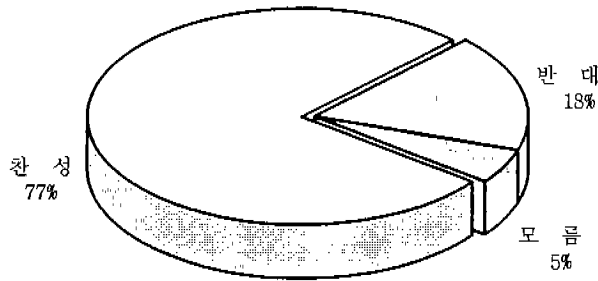


표 15: 포상의 내역 - 제도적 혜택

		반 대	모 림	찬 성
성 별	남 자	10.9	6.3	82.8
	여 자	46.7		53.3
연 령	30 대	18.4	5.3	76.3
	40 대	14.8	7.4	77.8
	50 대	20.0		80.0
직 업	지도자	24.2	3.0	72.7
	교 사	13.8	10.3	75.9
	공무원	11.1		88.9

포상의 내역 : 혜택 없음

모범청소년상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포상제도이므로 수상 그 자체가 개인에게 성취감과 명예감이라는 정신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상자에게 상금·물품이나 제도적 혜택과 같은 별도의 부상을 주지 않는 방안(또는 기념품과 같은 상징적인 부상 수여)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지도자들의 응답결과는 찬성이 전체에 1/4 에

불과한 반면, 반대의견이 60%에 달하여 과반수 이상이 어떤 형태로건 부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층별로는 중간층인 40 대의 찬성율이 37%로서 가장 높고, 연장집단인 50 대는 찬성율이 6.7%에 불과하여 큰 대조를 이루었다. 직업별로는 세 집단간에 응답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교사집단의 찬성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 13: 포상의 내역 - 혜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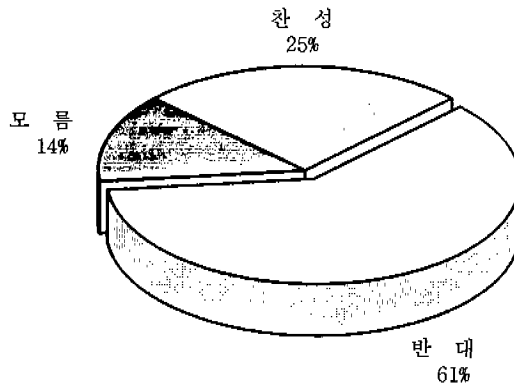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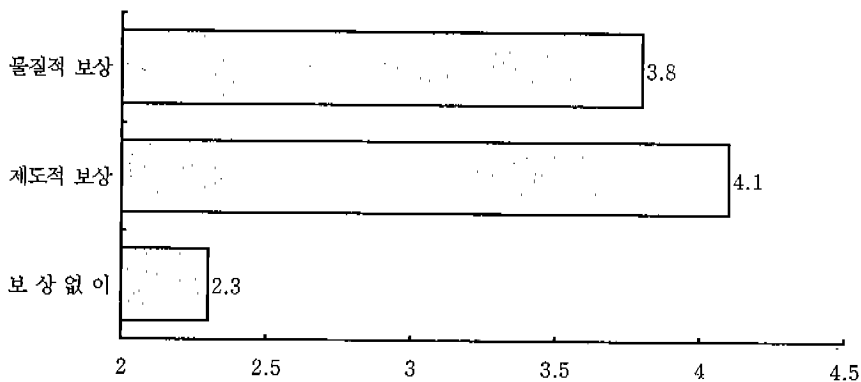


표 16: 포상의 내역 - 혜택 없음

		반 대	모 림	찬 성
성 별	남 자	62.5	12.5	25.0
	여 자	53.3	20.0	26.7
연 령	30 대	63.2	13.2	23.7
	40 대	51.9	11.1	37.0
	50 대	73.3	20.0	6.7
직 업	지도자	60.6	15.2	24.2
	교 사	58.6	13.8	27.6
	공무원	66.7	11.1	22.2

포상내역의 세가지 방안에 대한 5 점척도의 응답결과를 계량화하여 구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제도적 보상이 4.1로서 찬성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상금·물품 등의 물질적 보상(3.8)이었으며, 별도의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제 3은 2.3으로서 앞의 두가지 안에 비해 찬성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14: 포상의 내역 - 각 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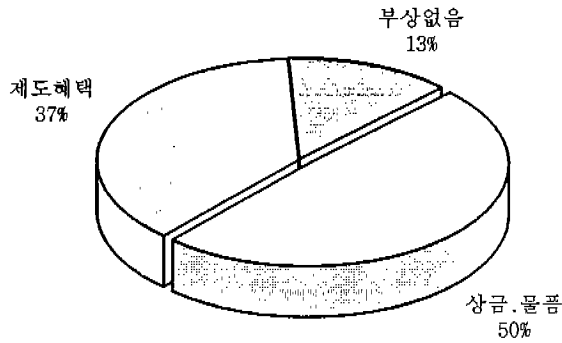


포상의 내역 : 예상

앞에서 제시한 포상내역의 세가지 안중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안이 채택되리라고 예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상금·물품을 부상으로 준다는 제 1안에 대한 응답율이 정확하게 전체의 절반인 50%였고, 그 다음이 제도적인 혜택으로서 37%, 별도의 부상을 주지않는다는 제 3안의 응답율은 13%로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예상은 앞서 조사한 각 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선호도와 배치되는데, 이것은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제도적 보상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운영·집행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국은 상품·물품의 형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5: 포상의 내역 - 예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면, 제 1 안에 대한 응답율은 남녀간에는 큰 차이가 없고 30 대,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고, 제 2 안은 50 대, 공무원집단의 응답율이 높은 편이었다. 제 3 안에 대해서는 연령층에 있어서 40 대의 응답율이 다소 높게 나타날 뿐 성별, 직업별 응답결과에서는 하위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7: 포상의 내역 - 각 안 비교

		상금·물품	제도혜택	부상없음
성 별	남 자	49.2	37.7	13.1
	여 자	50.0	35.7	14.3
연 령	30 대	58.3	33.3	8.3
	40 대	42.3	38.5	19.2
	50 대	42.9	42.9	14.3
직 업	지도자	56.7	30.0	13.3
	교 사	50.0	35.7	14.3
	공무원	33.3	55.6	11.1

현행 모범청소년상 제도는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 1) 안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행위 또는 업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은 안고 있으나, 훈격에 따른 차등화가 가능하고 행정처리상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포상제도에 대한 성취동기 부여,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과 병행하여 진학, 취업 등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전문가 면접조사에서도 물질적 보상보다는 제도적 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포상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 부여는 현실 여건 및 절차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① 교육개혁 조치 이후 내신성적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며, ② 직원채용시 인성 및 사회봉사 경력 등을 고려하는 기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모범청소년상 포상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 부여는 1) 포상경력이 학교 내신성적에 높은 비중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각급학교에 협조 의뢰하고 2) 취업 등의 용도로 포상경력자의 요청이 있을 때, 포상사실의 확인뿐만 아니라 포상사유를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4) 포상의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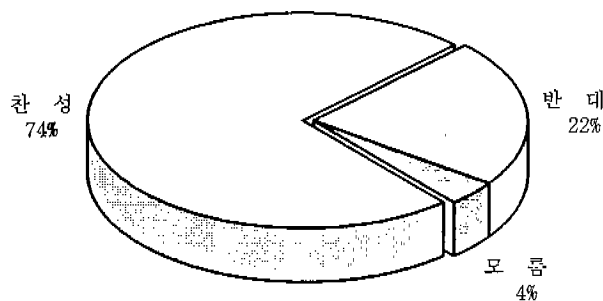
모범청소년상의 포상부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하여 활동분야별 구분방안(제1안), 가치덕목별 구분방안(제2안), 포상부문을 구분하지 않는 방안(제3안)의 세가지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사하였다.

- | |
|--|
| <p>1 안 : 체육, 예술, 학업, 근로 등 활동분야별로 대상자를 뽑아 시상한다.</p> <p>2 안 : 효도, 봉사, 근검, 협동 등 가치덕목별로 대상자를 뽑아 시상한다.</p> <p>3 안 : 별도의 시상부문을 규정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시상한다.</p> |
|--|

포상의 부문 : 활동분야별

먼저 체육, 예술, 학업, 근로 등 활동분야별로 구분하여 수상하는 제1안에 대해서 전체의 3/4에 달하는 74%의 지도자들이 찬성의사를 표시하였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비율은 22%였다.

그림 16: 포상의 부문 - 활동분야별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자의 찬성율이 여자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층별로는 찬성율에 있어서 30 대가 가장 낮고 50 대가 가장 높아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의 교사와 청소년지도자들의 찬성율은 7 할 안팎이었으나 공무원집단은 약 9 할이 찬성하여 가장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다.

표 18: 포상의 부문 - 활동분야별로

		반 대	모 립	찬 성
성 별	남 자	20.6	3.2	76.2
	여 자	30.8	7.7	61.5
연 령	30 대	27.8	2.8	69.4
	40 대	18.5	3.7	77.8
	50 대	14.3	7.1	78.6
직 업	지도자	22.6	6.5	71.0
	교 사	31.0	3.4	65.5
	공무원	11.8		88.2

포상의 부문 : 가치덕목별

효도, 봉사, 근검, 협동 등 가치덕목별 포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9%가 찬성하여 앞서의 활동분야별 포상방안에 비해 10% 이상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다.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10%에도 못미쳤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찬성율이 높았고, 연령층별로는 중간집단인 40 대의 찬성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10% 이상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17: 포상의 부문 - 가치덕목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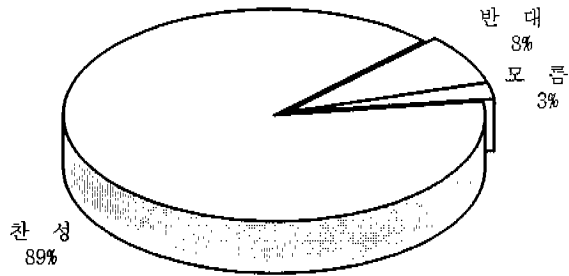


표 19: 포상의 부문 - 가치덕목별로

		반 대	모 림	찬 성
성 별	남 자	7.9	1.6	90.5
	여 자	7.7	7.7	84.6
연 령	30 대	11.1	2.8	86.1
	40 대		3.7	96.3
	50 대	14.3		85.7
직 업	지도자	12.9	3.2	83.9
	교 사	6.9	3.4	89.7
	공무원			00.0

포상의 부문 : 구분없이

포상부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서 포상하는 제 3 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26%만이 찬성한 반면, 반대응답은 그 배 이상에 달하여 어떤 형태로건 포상부문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의

전이 지배적이었다.

그림 18: 포상의 부문 - 구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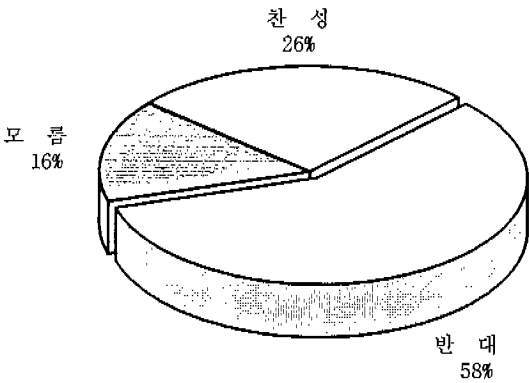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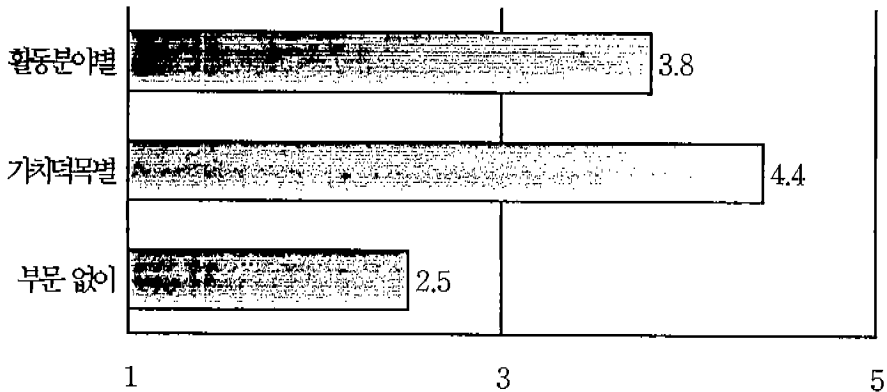
표 20: 포상의 부문 - 구분없이

		반 대	모 림	찬 성
성 별	남 자	58.7	15.9	25.4
	여 자	53.8	15.4	30.8
연 령	30 대	61.1	11.1	27.8
	40 대	59.3	18.5	22.2
	50 대	50.0	21.4	28.6
직 업	지도자	64.5	19.4	16.1
	교 사	48.3	20.7	31.0
	공무원	64.7		35.3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5% 이상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고, 연령층별로는 30 대와 50 대가 3 할에 다소 못미치는 찬성율을 기록한 반면 중간집단인 40 대의 찬성율은 22%로서 가장 적었다. 직업별로는 교사와 공무원집단의 찬성율은 모두 30%를 상회하였으나 청소년지도자들은 16.1%만이 찬성하여 가장 낮았다.

포상부문에 대한 이상의 세가지 안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 안에 대한 5 점척도의 응답결과를 계량화하여 구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제 2 안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4.4로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제 1 안으로서 3.8 이었고 별도의 포상부문을 구분하지 않는 제 3 안의 평균값은 2.5로서 앞의 두가지 안에 훨씬 못미쳤다.

그림 19: 포상의 부문 - 각 안 비교



포상의 부문 : 예상

포상부문에 대한 세가지 안 중 어느 안으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자들의 예상을 질문해 본 결과 제 2 안의 응답율이 63%로서 가장 높았으며, 제 1 안(활동분야별)의 응답율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27%였고 포상부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제 3 안이 채택되리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제 1 안의 응답율은 남자, 청소년 지도자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제 2 안은 여자, 40 대, 공무원집단에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고 제 3 안은 여자, 50 대, 교사집단의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 20: 포상의 부문 -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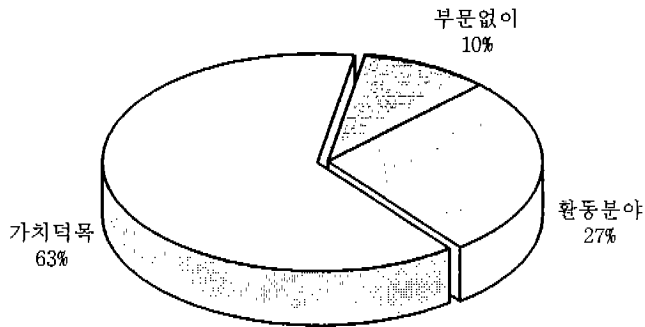


표 21: 포상의 부문 - 예상

		활동분야	가치덕목	부문없이
성 별	남 자	29.5	62.3	8.2
	여 자	15.4	69.2	15.4
연 령	30 대	25.7	62.9	11.4
	40 대	26.9	69.2	3.8
	50 대	28.6	57.1	14.3
직 업	지도자	43.3	50.0	6.7
	교 사	17.9	71.4	10.7
	공무원	11.8	82.4	5.9

현행제도의 포상부문은 활동부문(체육, 문화)과 가치덕목(용기, 예절, 협동, 긍지)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각 부문별 포상기준이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활동분야보다는 가치덕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식에 대한 찬성도가 높으나 가치덕목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가, 또한 개별 가치덕목간의 개념적 구분이 모호한 점(예: 용기와 긍지, 예절과 협동의

구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활동분야를 기준으로 시장부문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포상자 추천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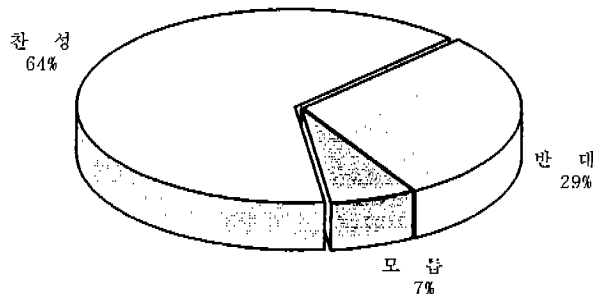
모범청소년상의 포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어느 선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청소년에게도 추천자격을 주는 방안,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성인들에게 추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의 세가지 안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 1 안 :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 2 안 :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성인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 3 안 :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자격있는 전문가들만이 추천할 수 있게 한다.

포상자 추천자격 : 청소년 포함

먼저 청소년에게도 추천자격을 부여하는 제 1안에 대하여 과반수를 넘는 64%가 찬성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반대의사를 나타낸 비율도 거의 3 할에 달하였다. 청소년들의 또래집단내에서의 추천방식에 관하여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포상자의 추천자격 - 청소년 포함



제 1 안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고 연령층별로는 30 대, 40 대, 50 대의 전 연령층에 걸쳐 거의 유사한 응답경향을 보였고, 직업별로는 청소년지도자와 교사집단의 찬성율이 6 할 남짓한 반면, 공무원의 8 할 이상이 찬성의사를 나타낸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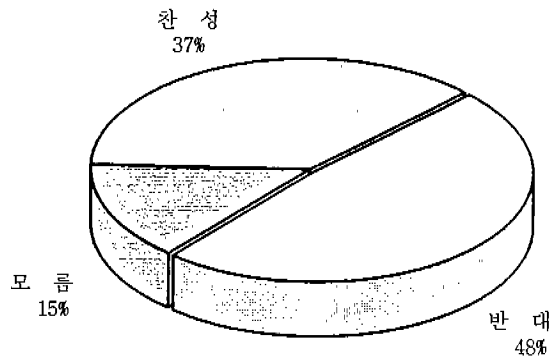
표 22: 포상자의 추천자격 - 청소년 포함

		반 대	모 립	찬 성
성 별	남 자	31.7	6.3	61.9
	여 자	15.4	7.7	76.9
연 령	30 대	28.6	5.7	65.7
	40 대	28.6	7.1	64.3
	50 대	28.6	7.1	64.3
직 업	지도자	26.7	13.3	60.0
	교 사	33.3	3.3	63.3
	공무원	17.6		82.4

포상자 추천자격 : 일반 국민 포함

포상자 추천자격을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성인들에게 부여하는 제 2 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37%만이 찬성한 반면, 반대응답은 48%로서 반대의견이 다수를 점하였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지도자도 15%로서 적지 않은 수에 달하였다.

그림 22: 포상자의 추천자격 - 일반 국민



제 2 안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자의 46.2%가 찬성하여 남자의 찬성율(34.9%)을 10% 이상 앞섰으며, 연령층별로는 40 대와 50 대의 찬성율이 모두 4 할 이상이었으나 가장 연소 집단인 30 대는 25.7%만이 찬성한 점이 두드러지며, 직업별로는 찬성율에 있어서 교사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청소년지도자와 공무원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23: 포상자의 추천자격 - 일반 국민

		반 대	모 름	찬 성
성 별	남 자	49.2	15.9	34.9
	여 자	46.2	7.7	46.2
연 령	30 대	65.7	8.6	25.7
	40 대	32.1	21.4	46.4
	50 대	42.9	14.3	42.9
직 업	지도자	50.0	16.7	33.3
	교 사	43.3	16.7	40.0
	공무원	58.8	5.9	35.3

포상자 추천자격 : 전문가들만

청소년과 일반 성인들을 제외한 교사, 지도자 등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에게만 추천자격을 부여하는 제 3 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63%가 찬성의사를 표시하여 세가지 안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비율도 전체의 3 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림 23: 포상자의 추천자격 - 전문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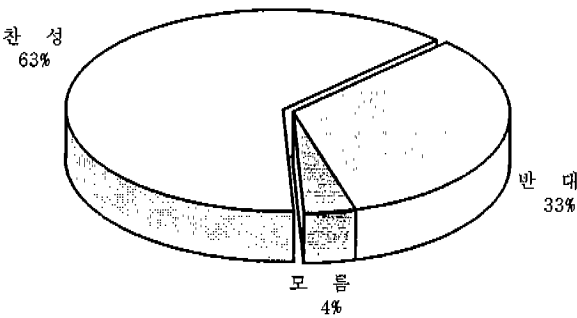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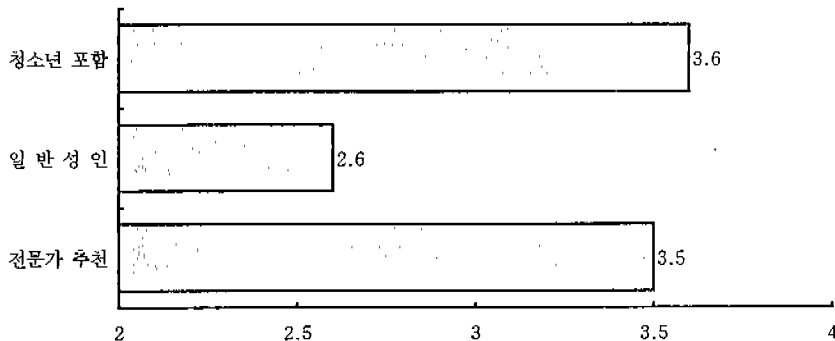
표 24: 포상자의 추천자격 - 전문가만

		반 대	모 름	찬 성
성 별	남 자	30.2	3.2	66.7
	여 자	46.2	7.7	46.2
연 령	30 대	40.0		60.0
	40 대	28.6	3.6	67.9
	50 대	21.4	14.3	64.3
직 업	지도자	43.3	3.3	53.3
	교 사	26.7	3.3	70.0
	공무원	29.4	5.9	64.7

제 3 안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찬성율이 여자보다 20% 이상 높았으며, 연령층별로는 비교적 고른 응답 경향을 보였으나 40 대의 찬성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직업 별 찬성율은 교사, 공무원, 청소년지도자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상자의 추천자격에 대한 세가지 안의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해 5 점 척도의 응답결과를 계량화하여 얻은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을 포함하는 제 1 안이 3.6 으로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하여는 3 안이 3.5 로서 제 1 안에 비해 0.1 이 낮았으며, 일반성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 2 안의 평균값은 2.6 으로서 앞의 두 안에 비해 훨씬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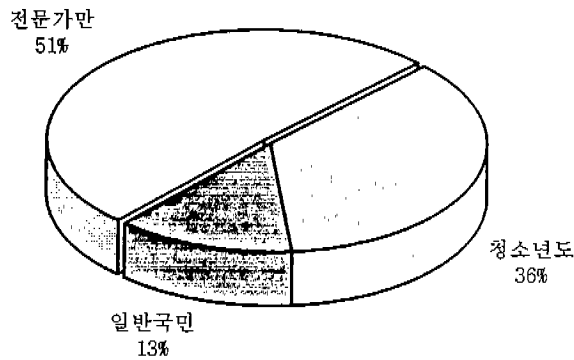
그림 24: 포상자의 추천자격 - 각 안 비교



포상자 추천자격 : 예상

포상자의 추천자격에 대한 세가지 안 중 최종적으로 어느 안이 채택 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자들의 예상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의 절반 수준인 51%가 제 3 안으로 결정되리라고 예상하였고, 제 1 안은 36%만이 찬성하여, 이 두 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선호도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많은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도 추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제도운영상의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5: 포상자의 추천자격 - 예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제 1 안에 대해서는 여자, 40 대, 교사집단, 제 2 안은 남자, 40 대, 청소년지도자들의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제 3 안에 대해서는 여자, 30 대, 청소년지도자들이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표 25: 포상자의 추천자격 - 각 안 비교

		청소년도	일반국민	전문가만
성 별	남 자	35.5	14.5	50.0
	여 자	38.5	7.7	53.8
연 령	30 대	34.3	8.6	57.1
	40 대	40.7	18.5	40.7
	50 대	35.7	14.3	50.0
직 업	지도자	20.0	23.3	56.7
	교 사	51.7		48.3
	공무원	47.1	11.8	41.2

현행 제도에서는 주로 전문가들에 의한 추천방식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 또래집단 내에서의 추천방식은 채택되지 않고 있다. 그 요인으로서 1) 나이 어린 청소년의 경우 심사를 위한 서식작성이 어렵고, 2) 책임감이 없는 불성실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지

적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또래집단 추천방식은, 1) 청소년을 위한 포상제도에 청소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고, 2) 포상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또래집단 추천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 기존의 추천방식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2)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천서식을 간략하게 하고, 3) 학교, 직장 등 기관별로 청소년들이 작성한 추천서를 일괄 수합하여 교사, 기관장 등이 일차적으로 선별한 뒤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4) 청소년들이 직접 시도 청소년과에 제출한 추천서는 담당 공무원의 이를 선별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추천서에 한하여 해당 청소년의 담임교사, 마을 유지, 유자격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6) 심사위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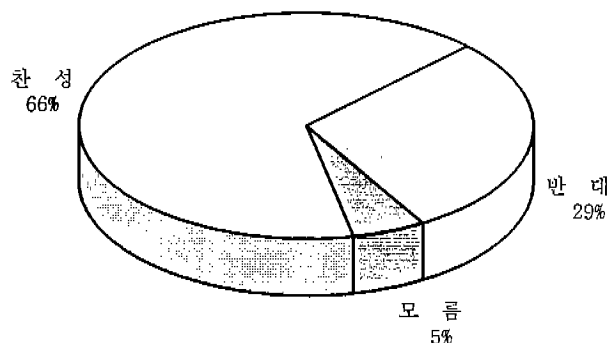
현행 모범청소년상의 심사위원은 문체부에서 위촉한 청소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현행의 방식 외에 청소년들을 심사위원에 포함하는 방안, 일반국민들도 심사위원에 포함하는 방안 등 두가지 안을 덧붙여서 각 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 1 안 : 청소년들도 심사위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2 안 : 일반국민들도 심사위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3 안 : 청소년지도자, 교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만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심사위원 구성 : 청소년 포함

먼저 청소년들을 심사위원에 포함하는 제 1 안에 대해서 전체의 66%가 찬성하였고 반대의견을 표시한 비율은 29%로서 그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림 26: 심사위원 구성 - 청소년 포함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의 찬성율이 남자보다 1

할 정도 높았으며, 연령층별로는 30 대와 40 대의 찬성율이 모두 7 할을 상회하는 반면, 50 대의 40%만이 찬성의사를 나타낸 점이 주목된다. 직업별로는 연령층별 응답결과와 유사하게 청소년지도자와 공무원집단의 77% 정도가 찬성한 반면, 교사집단의 찬성율은 4 할 남짓하였다. 청소년을 심사위원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히 50 대와 교사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심사위원 구성 - 청소년 포함

		반 대	모 립	찬 성
성 별	남 자	31.3	4.7	64.1
	여 자	20.0	6.7	73.3
연 령	30 대	27.8		72.2
	40 대	21.4	7.1	71.4
	50 대	46.7	13.3	40.0
직 업	지도자	16.1	6.5	77.4
	교 사	50.0	6.7	43.3
	공무원	22.2		77.8

심사위원 구성 : 일반 국민 포함

심사위원 구성에 일반국민들을 포함하는 제 2 안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의 67%가 찬성하였고, 24%가 반대하여 앞서의 제 1 안과 거의 유사한 응답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정보다는 남성, 30 대, 50 대보다는 40 대의 찬성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집단의 찬성율이 83.3%로서 청소년지도자, 교사집단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성, 40 대, 공무원집단이 제 2 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 심사위원 구성 - 일반 국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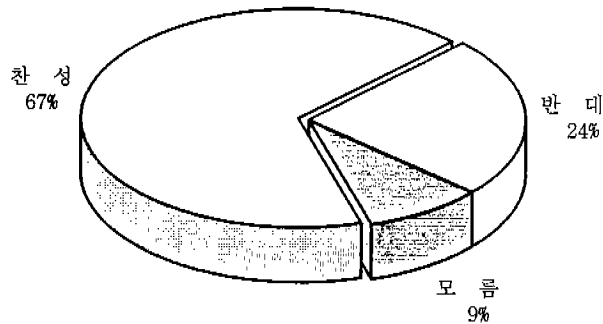


표 27: 심사위원 구성 - 일반 국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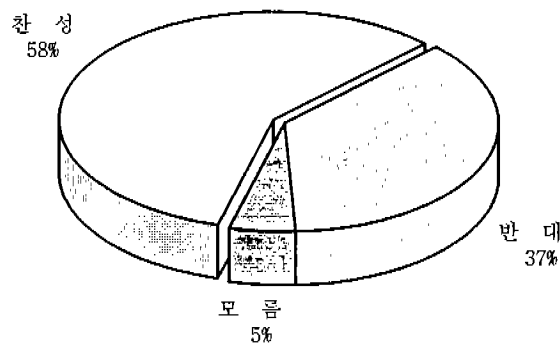
		반대	모름	찬성
성별	남자	21.9	9.4	68.8
	여자	33.3	6.7	60.0
연령	30대	29.7	5.4	64.9
	40대	14.3	10.7	75.0
	50대	26.7	13.3	60.0
직업	지도자	21.9	9.4	68.8
	교사	26.7	13.3	60.0
	공무원	16.7		83.3

심사위원 구성 : 전문가들로만

심사위원 구성에서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은 배제하고 전문가들로만 편성하는 현행의 방식에 대하여 찬성응답율은 앞서 두 안에 비해 훨씬 낮은 58%였고, 반대응답율은 37%로서 가장 높았다.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현행 심사위원 구성방식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 심사위원 구성 - 전문가들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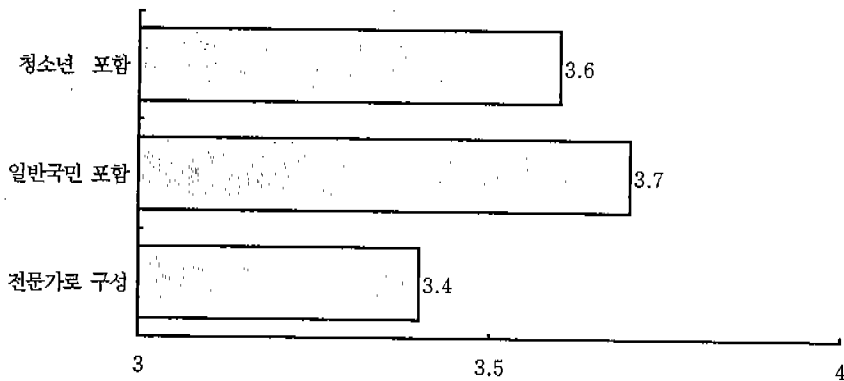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 연령층별로는 가장 연장집단인 50 대의 찬성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었고 직업별로는 찬성율에 있어서 교사집단이 가장 높은 반면, 청소년지도자 집단이 가장 낮았다.

표 28: 심사위원 구성 - 전문가들로만

		반 대	모 름	찬 성
성 별	남 자	39.1	6.3	54.7
	여 자	26.7		73.3
연 령	30 대	45.9	8.1	45.9
	40 대	28.6	3.6	67.9
	50 대	26.7		73.3
직 업	지도자	40.6	6.3	53.1
	교 사	30.0	3.3	66.7
	공무원	38.9		61.1

심사위원 구성방식에 관한 세가지 안의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해 5 점 척도의 응답결과를 계량화하여 얻은 평균값을 검토해 보면, 제 2 안과 제 1 안이 각각 3.7 과 3.6 으로서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제 3 안의 평균값이 3.4 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가지 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9: 심사위원 구성 - 각 안 비교



심사위원 구성 : 예상

심사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예상을 조사한 결과, 가장 다수인 47%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제 3 안이 채택되리라 예상하였고, 제 1 안과 제 2 안의 응답율은 각각 28%와 25%로서 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앞서 각 안에 대한 응답결과를 고려해 보면, 제 1 안과 2 안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국은 제 3 안으로 귀결되리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 심사위원 구성 -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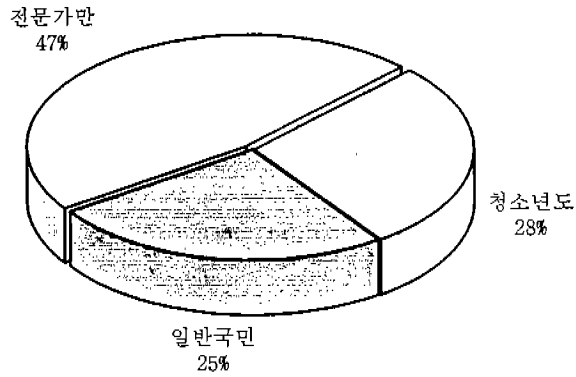


표 29: 심사위원 구성 - 예상

		청소년도	일반국민	전문가만
성 별	남 자	28.1	28.1	43.8
	여 자	26.7	13.3	60.0
연 령	30 대	24.3	27.0	48.6
	40 대	39.3	25.0	35.7
	50 대	13.3	26.7	60.0
직 업	지도자	34.4	25.0	40.6
	교 사	33.3	13.3	53.3
	공무원	5.6	50.0	44.4

7) 제도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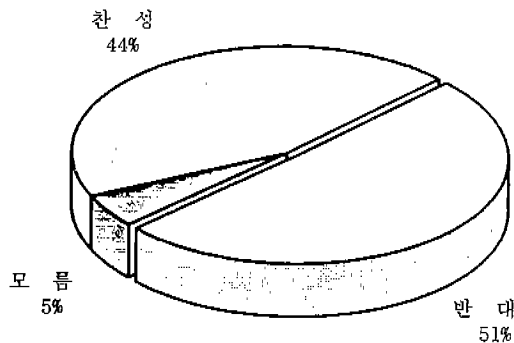
현재 대한민국 모범청소년상은 정부(문화체육부)에서 그 운영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 현행의 방식 외에 청소년 기관·단체 위탁 운영방안, 별도의 법인 설립 운영방안 등 포상제도 운영방식에 관한 세가지 안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1 안 : 정부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한다.
- 2 안 : 공신력있는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한다.
- 3 안 : 이 포상제도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도 운영방식 : 정부 직접 관장

먼저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제 1 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44%가 찬성하였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비율은 이보다 많은 51%로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점하였다.

그림 31: 제도 운영방식 - 정부 직접 관장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찬성율이 여자에 비해 10% 이상 높았고, 연령층별로는 찬성율이 50 대가 66.7%에 달한 반면 30 대는 27.0%에 불과하였고 40 대가 그 중간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 질수록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직업별로는 교사집단은 과반수 이상(60.0%)이 찬성하였으나 청소년지도자와 공무원집단의 찬성율은 모두 4 할에 못미쳤다. 특히 현재 모범청소년상 포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집단에서 반대의견이 6 할에 달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표 30: 제도 운영방식 - 정부 직접 관장

		반 대	모 립	찬 성
성 별	남 자	48.4	4.7	46.9
	여 자	60.0	6.7	33.3
연 령	30 대	70.3	2.7	27.0
	40 대	35.7	7.1	57.1
	50 대	26.7	6.7	66.7
직 업	지도자	62.5	3.1	34.4
	교 사	30.0	10.0	60.0
	공무원	61.1		38.9

제도 운영방식 : 민간기관 위탁

모범청소년상 포상제도를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가 찬성하여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방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비율은 2 할 남짓한 수준이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자의 찬성율이 80.0%로서 남자보다 1 할정도 높았고,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 걸쳐서 모두 7 할 이상이 찬성하였는데, 특히 50 대가 가장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다. 직업별로는 청소년지도자와 공무원집단의 찬성율은 거의 8 할에 근접하였으나 교사 집단은 66.7%만이 찬성하여 가장 낮았다.

그림 32: 제도 운영방식 - 민간기관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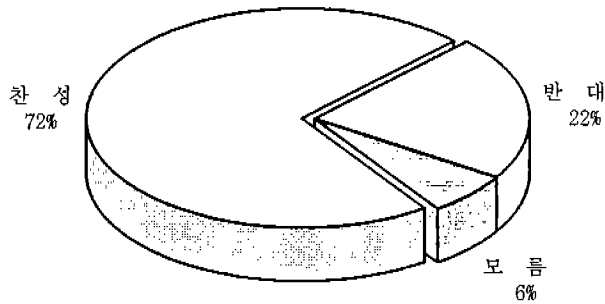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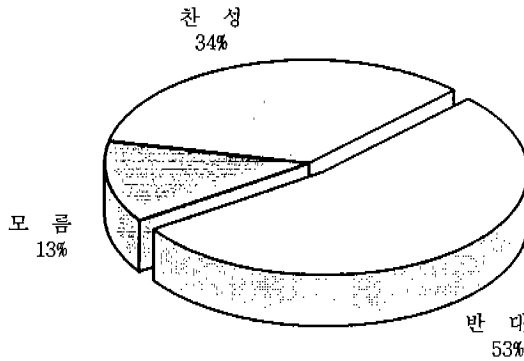
표 31: 제도 운영방식 - 민간기관 위탁

		반 대	모 름	찬 성
성 별	남 자	23.4	6.3	70.3
	여 자	13.3	6.7	80.0
연 령	30 대	24.3	5.4	70.3
	40 대	17.9	10.7	71.4
	50 대	20.0		80.0
직 업	지도자	15.6	6.3	78.1
	교 사	26.7	6.7	66.7
	공무원	16.7	5.6	77.8

제도 운영방식 : 별도법인 설립

정부직접 관장방식이나 기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외에 모범청소년상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만이 찬성하였고,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림 33: 제도 운영방식 - 별도 법인 설립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층별로는 가장 연소집단인 30 대의 4 할 이상이 찬성한 반면 40 대와 50 대의 찬성율은 모두 3 할에도 못미쳤다. 직업별로는 세 집단간의 차이가 현격하였는데, 공무원의 50%가 찬성한 반면, 교사집단의 찬성율은 16.7%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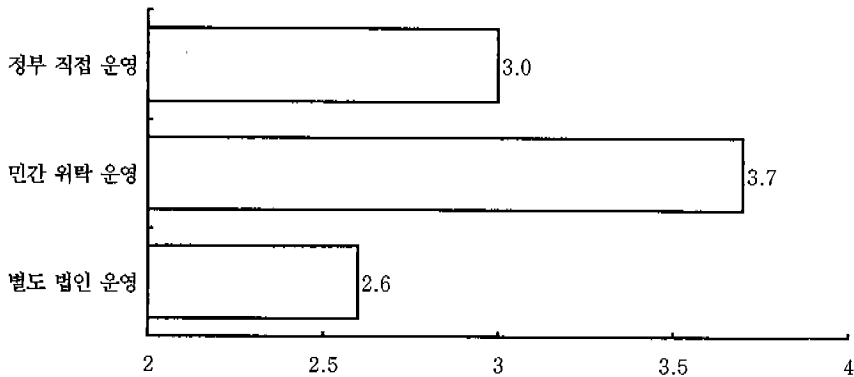
표 32: 제도 운영방식 - 별도 법인 설립

		반 대	모 립	찬 성
성 별	남 자	51.6	14.1	34.4
	여 자	60.0	6.7	33.3
연 령	30 대	45.9	8.1	45.9
	40 대	60.7	17.9	21.4
	50 대	60.0	13.3	26.7
직 업	지도자	50.0	12.5	37.5
	교 사	63.3	20.0	16.7
	공무원	50.0		50.0

포상 제도 운영방식에 관한 세가지 안의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해 5 점척도의 응답결과를 계량화하여 얻은 평균값을 검토해 보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제 2 안이 3.7로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고, 제 1 안(정부 직접관장)이 이에 훨씬 못미치는 3.0으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제 3 안(별도법인 설립)이 2.6으로서 가장 낮았다.

그림 34: 제도 운영방식 - 각 안 비교



제도 운영방식 : 예상

포상제도의 운영방식이 어떤 형태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자들의 예상을 조사해본 결과 제 1 안(정부 직접관장)과 제 2 안(민간기관 위임)의 응답율이 모두 42%로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제 3 안(별도법인 설립)의 응답율은 16%에 불과하였다. 앞서 응답결과에서 제 2 안의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았음에 비해 결과에 대한 예상에서는 제 1 안과 동일한 응답율을 보인 것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행 제도를 변경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대상기관 선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감안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제 1 안에 대해서는 남자, 50 대, 교사집단, 제 2 안은 남자, 공무원집단, 제 3 안은 여자, 30 대, 청소년 지도자들의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 35: 제도 운영방식 -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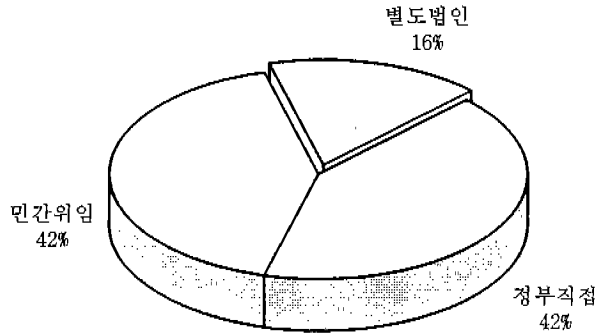


표 33: 제도 운영방식 - 예상

		정부직접	민간위임	별도법인
성 별	남 자	43.8	43.8	12.5
	여 자	33.3	33.3	33.3
연 령	30 대	37.8	37.8	24.3
	40 대	42.9	46.4	10.7
	50 대	46.7	46.7	6.7
직 업	지도자	37.5	43.8	18.8
	교 사	50.0	40.0	10.0
	공무원	33.3	50.0	16.7

8) 홍보문제

현행 모범청소년상 포상제도는 청소년육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표명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제도의 존재 자체가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요인으로는 수상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의 운영이 행정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공서의 연례적인 행사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신문, TV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미흡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서는 1) 수상인원의 증원 및 포상내용(부상)의 보강, 2) 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의 참여 폭 확대, 3) 시상식과 더불어 다양한 청소년관련 이벤트 개최, 4) 수상자의 생활수기, 체험담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 보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요약 및 제언

제도의 명칭

명칭은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제도의 성격과 취지를 간결하게 압축하여 전달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명칭 (“모범청소년상”)은 미래지향적인 진취적인 의미보다는 현실순응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진취적인 청소년의 기상을 상징하고, 세기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21세기 청소년상”이라는 명칭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포상기준

지금까지 모범청소년상의 수상한 역대 수상자들의 특성을 검토해 보면, 주로 다음의 세가지 기준에서 수상자가 선발되어 왔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재능과 자질 :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는 청소년2. 가정·생활환경 : 어려운 가정·생활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소년3. 행동·품성 : 행동이나 품성의 면에서 다른이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
|---|

이중 가정·생활환경과 행동·품성은 포상의 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능·자질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이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 국제대회 등의 입상자로서 이미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명예와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들에게 다시 국가가 상을 주는 것은 동일한 행위 또는 업적에 대한 이중포상의 의미가 강하다.

전문가의 의견조사에서도 포상의 기준으로서 세가지 요소중 재능·자질에 대한 찬성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예술, 체육 등의 업적은 개인의 노력 못지 않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가정환경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업적만을 기준으로 시상하는 것은 대다수 일반 청소년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포상후보자 중 1, 2, 3의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며, 특히 재능·자질의 사유만으로 시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포상인원 배분

포상인원의 배분은 다음의 세가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1. 각 시·도별로 일정한 인원을 정해 놓고 선발한다.
2. 학생, 근로청소년 등 청소년의 하위유형별로 일정인원을 정해 놓고 선발한다.
3. 인원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현재의 인원배분 방식은 제 1안과 유사한 형태로 각 시·도별(청협 포함)로 동일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 장관 표창자 선정에도 시·도별 안배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 각 시·도별 청소년인구 분포를 무시함으로써 기회불평등의 소지를 안고 있고,
- 각 지역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추천재량권을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전문가의 의견조사에서도 시·도별로 일률적인 인원배분 방식에 대해

서는 찬성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추천인원의 배정 : 각 시·도별로 추천인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인원을 조정하도록 한다(예: 각 시·도별로 5~ 20 명선)
- 포상인원의 배정 : 포상자 심사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별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경우 필연적으로 각 시·도별 추천인원 및 포상인원이 달라지는 현상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 모범청소년의 선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특성 및 행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지역적 안배 때문에 훈격이 달라지거나 탈락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이 빚어져서는 안되며,
- 보다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각 시·도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찬성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별 배분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가정환경, 부모결혼 등), 근로청소년들이 포상인원 중 일정비율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시상부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포상내용

포상의 내용(보상)은 다음의 세가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1. 일정한 액수의 상금이나 장학금 또는 물품 등의 부상을 준다
2. 진학, 취업 등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수상 자체가 정신적인 보상이 되므로 별도의 부상은 주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첫번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은 행위 또는 업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은 안고 있으나, 훈격에 따른 차등화 및 행정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포상에 대한 성취동기 부여와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과 병행하여 진학, 취업 등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물질적 보상보다는 제도적 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포상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 부여는 현실 여건 및 절차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 교육개혁 조치 이후 생활기록부에 기초한 내신성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 직원채용시 인성 및 사회봉사 경력 등을 고려하는 기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실현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모범청소년상 포상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 부여는 다음의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포상경력이 학교 내신성적에 높은 비중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각급학교에 협조 의뢰
- 취업 등의 용도로 포상경력자의 요청이 있을 때, 포상사실과 포상사유를 명시한 확인서 발급
- 주요기업체(전경련 등)에 포상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고 직원채용시 포상경력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

포상부문

포상부문은 활동분야별, 가치덕목별로 설정하는 방식과 별도로 포상부문을 구분하지 않는 다음의 세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1. 체육, 예술, 학업, 근로 등 활동분야별로 대상자를 뽑아 시상한다.
2. 효행, 봉사, 근검, 협동 등 가치덕목별로 대상자를 뽑아 시상한다.
3. 별도의 시상부문을 규정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시상한다.

현행 제도의 포상부문은 활동부문(체육, 문화)과 가치덕목(용기, 예절, 협동, 긍지)이 혼재되어 있고, 각 부문별 포상기준이 개념적으로 명확하

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활동분야보다는 가치덕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식에 대한 찬성도가 높으나, 가치덕목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 또한 개별 가치덕목간의 개념적 구분이 모호한 점(예: 용기와 긍지, 예절과 협동)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활동분야를 기준으로 시상부문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포상부문 설정을 위한 활동분야의 구분은 현행 1) 문화체육부의 관장업무(문화, 체육), 2) 청소년기본법의 체계, 3) 청소년의 하위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여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4: 포상부문 시안

부 분	선 정 기 준	비 고	
		주요고려사항	청소년의 유형
문 화	문화·예술 방면의 재능과 자질이 탁월한 한편, 행동이나 품성이 다른이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재능·자질 (행동·품성 고 려)	일반청소년 중 심
체 육	체육 및 관련방면의 재능과 자질이 탁월한 한편, 행동이나 품성이 다른이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활 동	수련활동, 단체활동 등을 통하여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하여 다른이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행동·품성	일반청소년 중 심
봉 사	협동과 희생의 정신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다른이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생 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함으로써 다른이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환경·생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근 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른이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위의 시상부문을 적용할 경우 특히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문화, 체육부문의 경우 개인의 재능과 자질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행동·품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문화, 체육, 활동, 봉사 부문은 모든 유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생활, 근로 부문은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육체노동직 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추천방식

포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의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2.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성인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자격있는 전문가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로 3.의 방식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의 추천은 배제되고 있다.

청소년 또래집단 내에서의 추천방식은.

- 나이 어린 청소년의 경우 심사를 위한 서식작성이 어렵고,
- 책임감이 없는 불성실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추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 청소년을 위한 포상제도에 청소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 포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흥미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청소년의 추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천서식을 간략화하고,
- 학교, 직장 등 집단 내부에서 소속 청소년들이 작성한 추천서를 일

괄 수합하여 교사, 기관장 등이 일차적으로 선별한 뒤 제출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 청소년들이 직접 시·도 청소년과에 제출한 추천서는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검토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추천서에 한하여 해당 청소년의 담임교사, 마을 유지, 청소년지도자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조사에서도 청소년들에게도 추천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성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보문제

현행 모범청소년상 포상제도는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잘 인식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요인으로서

- 수상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 제도의 운영이 주로 행정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공서의 연례적인 행사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 팜플렛, 포스터, 신문, TV 등의 홍보매체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는.

- 수상인원의 증원 및 포상내용(부상)의 보강
-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및 일반국민들의 참여 폭 확대
- 시상식과 더불어 다양한 청소년관련 이벤트 개최
- 수상자의 생활수기, 체험담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다량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기업·재단을 공동 주관 또는 후원사로 지정하여 지원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료 : 외국의 사례

영국의 에딘버러 공작 포상계획

이 자료는 에딘버러 공작 포상계획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지도자용 안내자료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에딘버러 공작 포상계획은 1956년에 창설되어 현재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55개국에서 연인원 200 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인 포상제도와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 특별한 재능이나 자질보다는 일정 기간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취도가 심사의 기준이 되고,
- 일체의 부상이 주어지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의 메달만이 수여될 뿐이며,
- 포상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록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강한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포상제도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머 리 말

창립경위

이 프로그램은 14 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균형있는 자발적인 자기개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The Duke of Edinburgh' Award"라는 이름으로 1956 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Edinburgh 공작과 교육자이자 Outward Bound 의 창시자인 Kurt Hahn 박사, 탐험가이며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팀의 리더인 Hunt 경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사람들의 의해서 기획되었다.

에딘버러 포상계획은 영국에서 보급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점차 다른 나라의 학교와 청소년단체로 확산되어 갔다.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구성은 다른 문화권이나 사회에서도 쉽게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은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만, 활동내용이나 적용방식, 프로그램의 명칭 등은 각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이 프로그램은 "President's Award" 또는 "National Youth Award"로 지칭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요구와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용·개선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포상협회

1988 년 세계의 포상 프로그램 *award programme* 대표자들이 호주의 Brisbane 에서 모임을 갖고 “에딘버러공 포상 국제협회”*The Duke of Edinburgh's Award International Association*를 결성하였다. 이 기구는 개별 국가단위 포상기구 *National Award Authority* 들간의 토의와 상호 연락업무의 수단으로서, 포상 프로그램의 원칙과 기준들이 전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프로그램 실행조직들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기준은 선언, 기본원칙, 운영원칙, 실행규약에 제시되어 있다.

□ 선언

에던버러 포상계획(이하 "포상계획")은 개인적 도전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발견과 성장, 자신감, 인내심, 책임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장려하는 균형있고, 자발적인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기본원칙

- 포상의 기준은 참가자의 최초의 능력을 감안하여 참가자가 인내심과 노력을 통해 성취한 개인적인 향상으로서, 참가자들간의 경쟁을 통한 서열과 순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 포상계획에의 참가는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4 가지 부문 중에서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성,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한 참가자간의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운영원칙

- 참가자는 14 세에서 25 세까지의 청소년이어야만 한다.
- 프로그램은 봉사, 탐험, 기능과 육체적 레크리에이션의 네가지 의무적인 부분들로 구성된다.
- 포상에는 동상(Bronze: 14 세 이상), 은상(Silver: 15 세 이상), 금상(Gold : 16 세 이상)의 세가지가 있다.
- 수상에 소요되는 최소기간은 동상이 6 개월, 은상 12 개월, 금상은 18 개월이다.

□ 실행규약

- 포상계획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관·단체는 국제 사무국 *International Secretariat* 이 제시하는 운영기준을 따라야 한다.
- 포상 프로그램은 모든 측면에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성, 인종,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그밖의 개인적인 배경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포상 프로그램

기회와 도전

포상 프로그램은 도전과 관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개인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책임하에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능력과 같은 덕목을 습득하게 된다.

참가자들간의 경쟁은 배제된다.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유일한 상대는 바로 자기자신으로서, 자기동기화 *self-motivation*는 이 계획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달성해야만 하는 정해진 기준도 없다. 포상의 기준은 각 참가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성취했는가이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는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한다. 참가자는 네가지 부문 중에서 자신의 활동을 선택하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다. 모든 도전은 육체적, 정신적인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자기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포상계획에서의 성공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 계획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 수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모험을 체험하는 등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

14 세에서 25 세까지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유일한 참가자격은 자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결단과 흥미로운 경험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포상계획은 봉사, 탐험, 기능과 육체적 레크리에이션의 네부분을 포괄하는 문화적, 실제적, 탐험적 활동이다. 이 네가지 부문은 상호보완인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금, 은, 동상의 세가지 레벨이 있고 각 레벨은 각기 상이한 수준의 헌신과 노력을 요구한다. 수상을 위해서 참가자는 각 부문이 제시하는 기본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성취에 대한 인정의 상징으로서 배지와 증명서를 받게 된다. 별도의 부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오직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감이다.

참가자는 기록장 *Record Book* 을 받음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기록장에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달성한 발전과 성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지게 된다.

청소년은 자신의 연령범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레벨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청소년"들의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상한연령은 25세까지로 제한된다. 25세의 생일을 넘지 않는 한 각 단계별 수상에 요구되는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활동하도록 장려된다.

포상계획은 활동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결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교, 청소년 자원조직, 지방정부의 청소년담당 부서, 자신의 종교단체를 통해, 또는 개인 자격으로 포상계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단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기구와 조직

□ 국제 기구와 조직

포상계획의 의장은 영국의 에딘버러 공작이다. 이 계획을 주관하는 국제평의회 *International Trustees* 는 포상계획의 기본개념과 운영원칙의 범위 내에서 각국의 특수한 조건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가국들이 자기 나라의 사정에 적합한 형태로 조직과 운영상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포상계획의 국제적인 행정은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사무총장 *International Secretariat* 에 의해서 수행된다. 평의회 *Trustee* 를 대표하여 국제 사무총장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결정과 전 세계에 프로그램을 확산·보급시키는 업무를 관장한다.

포상계획의 원칙과 기준에 동의하고 일정한 가입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국가단위의 포상기구 *National Award Authority* 는 에딘버러공 포상국제협회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의 위원이 된다. 협회는 매 2~3년마다 개최되는 상담과 토론의 장인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을 개최한다.

포럼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국제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는 프로그램의 국제적 발전과 관련하여 협회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국제자문위원회는 국제평의회를 구성하는 세계 전역의 12개 포상지구 Award Region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 국가 기구와 조직

프로그램이 실제적인 운영은 각국의 국가포상기구 National Award Authority가 관장한다. 국가포상기구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로 구성되고 운영되지만, 모든 국가포상기구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각국의 국가포상기구는 국제협회가 제시하는 권장사항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운영과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가위원회나, 평의회 또는 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국가포상기구를 대신하여 포상계획을 운영하는 실행조직 Operating Authority에 위임된다. 실행조직의 기능은 청소년단체, 교육기관, 산업체 등 청소년육성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그룹이 담당할 수 있다.

□ 독립적인 실행조직

국가조직이 없는 곳에서는 학교나 청소년단체 등과 같은 개별적인 기관이 독립 실행자 라이선스 Independent Operator's Licence를 획득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국제평의회를 대신하여 국제 사무총장에 의해서 발급된다(자세한 사항은 마지막 장 "지도자를 위한 노트"에 명시되어 있다).

국제 사무총장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실행조직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실행조직들의 활동을 조정·평가할 수 있는 국가포상조정기구 National Award Co-ordinator를 임명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항

요 건

포상은 동장, 은장, 금장의 세가지의 형태로 시행된다. 수상을 희망하는 참가자는 다음 네 부문의 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 봉 사 : 타인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의 채득
- 탐 험 : 탐험과 발견 정신의 함양
- 기 능 : 개인적 관심과 실제적인 기능의 개발
- 육체적 레크리에이션 : 체력과 실행능력의 향상 장려

금장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네가지 부문 외에도 추가로 다음의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 지역사회 프로젝트 : 지역사회 내에서의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경험의 확대

포상계획에의 참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참가는 기록장을 받음으로써 시작된다. 기록장의 입수가 프로그램 참가의 출발점으로서 이 기록장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활동은 포상 자격심사에서 배제된다.

연령범위

연령범위는 14 세에서 25 세까지 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최소연령 기준은 동장이 14 세, 은장이 15 세, 금장이 16 세이다. 한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연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동장, 은장을 받은 청소년이 그 다음단계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나이때문에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동 장 : 모든 참가자 14 1/2 세
- 은 장 : 동장 포상자 15 1/2 세
직접 진입자 16 세
- 금 장 : 은장 포상자 17 세
직접 진입자 17 1/2 세

프로그램 참가자가 질병, 사고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25 세 생일을 넘게 되었을 경우 국가포상기구는 이를 심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자발적 시간의 개념

포상 프로그램의 참가시간 선택은 참가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기능부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학교의 학과내용이나 직업훈련 등의 주제와 중복되며, 봉사, 탐험, 육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훈련과정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곤 한다.

이 경우, 참가자는 학과수업이나 직업훈련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습득한 내용 외에 자신이 추가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강의와 평가

포상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강의와 평가는 국가포상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지역, 또는 국가단위의 실행조직의 승인을 받은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기록장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진보 상황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고 그 기록은 각 부문의 요건이 만족스럽게 충족되었을 때만 행해질 수 있다. 참가자는 실행조직의 기준에 충족되는 수준으로 모든 요건이 완수되었을 때 포상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3. 봉사

개 관

이 부문은 지역사회의 성원은 상호간에 책임이 있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활동에 필요한 기능 습득을 위한 일정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봉사활동의 선택은 개별 참가자의 취향과 동원가능한 자원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해당 지역사회와의 필요성에도 부합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봉사 부문은 참가자의 지역사회 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인관계의 기술과 리더십은 이 부문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자질이다. 봉사활동은 규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은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 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은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 *introduction* 을 이수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의 종류를 결정한 뒤 참가자는 최소한 다음의 기간 동안 규칙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 동 장 : 최소한 3 개월
- 은 장 : 최소한 6 개월
- 금 장 : 최소한 12 개월

참가자는 봉사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역할과 의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강사나 감독자로부터 활동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구해야만 한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은 전 기간에 걸쳐 자신이 이수한 훈련과정, 전문가로부터 조언받은 내용, 자신이 수행한 실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활동일지 *diary* 에 기록부 *log book* 에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이 요구된다.

봉사활동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청소년들은 직접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원봉사활동의 기초적인 사항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자신이 어떤 활동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일련의 강의나 봉사활동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또는 조사연구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참가자의 경험과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교안 *syllabus*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동 지도자 *Award leader*는 관련된 지식을 보유한 다른 이들과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의 욕구와 필요성에 기초를 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형태와 내용은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참가자에게 개인적인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봉사활동은 지역사회내의 한 개인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단체·조직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수도 있다. 단일 규모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 또한 응급처치나 인명구조와 같은 봉사를 위한 개인적 기능의 습득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서비스는 실제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훈련과정을 포함해야 하고, 실제적인 작업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카운셀링 세션을 포함해야 한다. 응급처치나 인명구조 방법 습득과 같은 서비스 활동은 실제적인 활동을 행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한 동장이나 은장 레벨에서 참가자는 어떤 사고의 응급구조팀의 일원이 된 다든가 해서 습득한 서비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장 레벨에서는 자신이 받은 훈련과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이 수행되어야만 하는데, 훈련과 실제활동을 합한 기간은 최소한 12 개월 이상이

어야 한다.

봉사활동의 유형들

다음은 가능한 봉사활동 서비스 유형의 예시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자 지침서를 참고할 것.

- 도움이 필요한 개인
- 병원, 보호센터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활동에서의 자원봉사
- 지역사회 교육활동, 건강교육활동
- 환경 봉사활동
- 모금활동
- 응급 봉사

서비스의 선택

서비스의 기회를 선택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활동의 지도자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나이와 능력에 맞는 활동은 선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허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14세의 어린 청소년은 교도소방문 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다. 봉사활동은 프로그램의 단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레벨이 올라갈수록 보다 도전적인 봉사활동을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참여와 헌신의 정도

최소한의 기간 동안의 규칙적인 헌신과 노력 이외에 정해진 시간 규정은 없다. 활동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보다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의 목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훈련과 강의

봉사를 위한 훈련은 실제적인 활동이 수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훈련과 지도는 적절한 자격을 갖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실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경험자에 의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전지도와 더불어 실제활

동 기간 중에 참가자와 감독자간의 상담과정이 행해지는 것이 권장된다. 이 과정은 참가자에게 적절한 도움이나 조언, 격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사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참가자와 강사·감독자는 실제활동이 끝난 후에 상담과정을 통해 참가자의 활동과 수행된 서비스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참가자가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 활동을 선택하거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평 가

참가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다.

- 앞서 기술된 기본요건의 충족도
- 선택된 활동에 대한 헌신도
- 참가자의 일반적인 수행실적과 노력
-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참가자의 이해와 인식의 향상도

많은 경우 참가자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은 강사나 감독자이다. 금장의 경우, 강사의 평가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실적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과정 - 주제 예시

오리엔테이션 과정의 목적은 모든 레벨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넓혀주는 것이다.

각 단계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도의 오리엔테이션 세션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동 장 : 최소한 1 세션
- 은 장 : 최소한 2 세션
- 금 장 : 최소한 3 세션

각 세션은 해당분야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 - 사회사업가, 정부 공무원, 종교인, 지방 의사 및 의료사업가 등 - 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참가자와의 자유토론을 포함해야 한다.

각 세션의 내용은 참가자의 욕구와 경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

장 레벨의 참가자는 보다 폭넓은 분야나 심도있는 토론 주제를 모색할 수도 있다.

만약 참가자가 이런 코스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면, 개인적 또는 여럿이서 함께 주제를 잡아서 연구하거나 지역사회의 욕구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도 있다.

4. 탐 험

개 관

탐험부문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흥미있는 도전과 생소한 환경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모험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모험의 조직, 계획, 훈련, 완수는 팀워크, 자립심, 의지와 협동을 요구한다. 탐험과정에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질을 계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모험의 유형들

이 부문에는 세가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답사 *Expedition*와 탐험 *Exploration* 그리고 그밖의 다른 모험적인 프로젝트이다.

모든 모험은 육지, 또는 수상 또는 해상에서의 목적을 가진 도보, 자전거 또는 말을 타고 또는 카누나 보트를 통해 수행되는 여정을 포함하고 있다.

답사는 여행을 그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모험의 일종으로서 길찾기, 항해, 캠프와 걷기, 모험의 목적과 관련된 과제들로 진행된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답사는 목적이 있는 여행이라 할 수 있다.

탐험은 여행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만 모험의 목적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길찾기, 항해, 여행과 캠핑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최소한 모험에 소요되는 전체시간의 1/3)도 포함된다. 탐험의 예로서는 자연적, 지리적, 또는 역사적 조사 또는 오리엔티어링, 동굴 탐험, 등산과 같은 육체적 활동 등이다. 탐험은 여행이 포함되어 있는 목적 수행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양자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것들과 거의 동등하게 또는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활동이 모험적인 프로젝트이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답사나 탐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유형의 모험을 위해서는 국가포상기구(독립 실행조직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요 건

다음의 요건들은 답사와 탐험에 관련된 것으로 그밖의 모험 프로젝트

는 반드시 이것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참가자는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 아래 여행을 포함하는 모험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훈련을 거친 후에 실행에 옮길 것이 요구된다. 참가자는 각 단계별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동장 : 답사 또는 탐험
- 온장 : 답사 또는 탐험
- 금장 : 답사, 탐험 또는 그밖의 모험 프로젝트

모험은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 동장 : 하루평균 6 시간씩 총 12 시간의 노력과 활동, 텐트에서의 하룻밤을 포함하는 이틀간의 여행
- 온장 : 하루평균 7 시간씩 총 21 시간의 노력과 활동, 텐트에서의 이틀밤을 포함하는 삼일간의 여행
- 금장 : 하루평균 8 시간씩 총 32 시간의 노력과 활동, 텐트에서의 삼일밤을 포함하는 4 일간의 여행

답사의 경우, 노력과 활동은 대략 다음의 기준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동장 : 15 마일 (24km) 의 이동거리, 도보로 할 경우는 이틀 정도
- 온장 : 30 마일 (48km) 의 이동거리, 도보로 할 경우는 3 일 정도
- 동장 : 50 마일 (80km) 의 이동거리, 도보로 할 경우는 4 일 정도

모험은 명확하게 규정되고 사전에 인지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참가자는 모험을 시작하기 이전에 필요한 훈련과 적절한 횟수의 연습 모험을 해야 한다. 이론적, 실제적 훈련은 개인 및 집단 안전대책, 길 찾기 및 환경조사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각 참가자는 모험이 끝난 뒤 레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나 사진또는 그밖의 시청각 자료의 형태로 행해질 수 있다.

참가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의 확보를 위해 모험은 반드시 경험있고 책임감있는 성인에 의해서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인이 그룹과 동반해서는 안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도.감독이 행해져야 한다. 그룹을 지도하는 성인은 그룹의 결정이나 목적을 방해해서는 안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 부문에서 필수적인 독립심, 책임감 및 도전의식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모험은 전원 또는 시골에서는 3명 내지 6명 단위, 벽지에서는 4명 내지 7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 최소 및 최대인원 규정은 그룹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각 참가자들이 그룹의 결정과 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된 것이다.

목 적

모든 모험은 참가자들이 주변환경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목표는 힘든 여행의 완수에서부터 실제적 연구나 조사의 일정한 성과, 또는 육체적 단련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훈련과 강의

적절한 사전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참가자는 특수한 유형의 여행(카누훈련, 승마 또는 사이클링 등)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기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탐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 장비
- 항해와 진로결정
- 캠핑기술
- 식량
- 안전장비
- 응급처치 기술
- 자연환경

관찰과 기록

강의는 경험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강사는 참가자들이 그들의 능력범위와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요건내에서 모험을 안전하고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모험 실습은 사전훈련의 한 부분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모험연습의 목표는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훌륭하게 모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모험실습은 계획된 최종 모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캠핑을 통한 숙박과정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모험실습을 할 것이 요구된다.

- 동 장 : 최소한 한번의 실습모험
- 은 장 : 최소한 두번의 실습모험 (동장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료했다면 한번)
- 금 장 : 최소한 세번의 실습모험 (동장과정에서 이부분을 수료했다면 두번, 은장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료했다면 한번)

참가자 그룹은 요구되는 수준의 숙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습모험을 할 수도 있다.

감 독

모든 모험은 그 실행과정상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경험있는 성인에 의해서 감독되어야 한다. 감독자는 참가자들이 모험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훈련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감독자는 훈련장사, 답사안내인, 탐험지도자 또는 다른 적절한 경험있는 성인이 될 수 있다.

감독자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 참가자들과 접촉해야 한다.

평 가

모험은 적절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자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그룹을 지도한 사람과 동일인 이어서는 안 된다. 평가자는 다음을 기준으로 그룹의 각 개인들을 평가해야 한다:

- 참가자의 의지, 인내력과 노력
- 참가자가 모험의 책임감을 공유하고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했는가의 여부

5. 기 능

개 관

이 부문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뚜렷한 목적의식하에 다양한 실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활동분야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 부문을 통해 참가자는 개인적 관심과 취미를 발전시키거나 또는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실제적 기능을 습득하거나, 연극공연, 채소제배 또는 공예와 같은 한정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이 부문의 강조점은 일정한 수준의 능력 도달보다는 참가자 자신의 능력범위내에서의 노력과 인내심에 두어진다. 참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대해 헌신과 "인내력"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능력의 지평을 넓히고 개인적인 도전목표를 충족시킬 것이 요구된다.

참가자들이 선택한 기능을 익히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참가자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있는 성인 강사를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부문에의 참가는 실제적인 기능의 개발 이외에서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지속적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요 건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기능을 익혀야 한다.

- 동 장 : 최소한 6 개월
- 은 장 : 직접 은장에 진입한 사람은 최소한 12 개월, 동장과정에서 이 부문을 이수한 사람은 최소한 6 개월
- 금 장 : 직접 금장에 진입한 사람은 18 개월, 이 부문의 은장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최소한 12 개월

국가포상기구의 허가를 얻어서 금장 과정의 청소년은 최소한 18 개월 동안(이 부문 은장과정 이수자는 12 개월) 두가지 기능을 익힐 수 있다. 이중 한 기능은 문화적 또는 여가적 기능이여야 하고, 다른 한 기능은 직업적 기능이여야 한다. 참가자는 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익히고 남은 시간에 다른 기능을 익힐 수도 있고, 두가지 기능을 같은 기간 동안에

동시에 익힐 수도 있다.

참가자는 참가기간 동안에 개인적인 향상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참가자로 하여금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을 익히고 자신의 능력에 기초한 상당한 정도의 기능수준의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가자는 자신이 과거에 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활동, 또는 전혀 새로운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포상 프로그램의 각 단계마다 이전 단계에서 자신이 이미했던 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고 새로운 활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능활동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 악기연주나 낚시와 같은 개인적 관심이나 취미의 습득
- 건축이나 전통의상가 같은 특별한 관심사에 대한 연구
- 가구제작이나 토지경작과 같은 일정한 과제의 완수
-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구제작이나 목각과 같은 직업적 기능 습득

선택하는 활동은 기능 그 자체의 습득로서 육체적 레크리에이션이나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은 참가자가 이미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것 중 어느것이나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참가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도전적이고 흥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능의 종류는 활동기간 동안 강사·감독자를 구할 수 없거나 필요한 자원을 입수할 수 없을 때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참가자는 혼자서 또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기능을 익힐 수 있다. 그러나 그룹활동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작업과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능활동을 위한 정해진 교안은 없다.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기능이 지닌 다양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현실적인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진도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활동 지도자나 강사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여건 내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을 확인할 책임을 지닌다.

선택된 기능은 청소년이 학교나 직장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참가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어 하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학교 시험이나 진급을 위한 작업은 평가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은 기능이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기능의 선택

참가자와 리더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 부문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활의 지평을 넓히고 무언가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자신의 앞으로의 생활이나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기능의 선택은 자원의 동원가능성에 의해서 제약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자기지역에서 과도한 비용없이 할 수 있고 강사를 구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도전감을 부여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부문은 모든 부문들 중 가장 긴 기간 동안의 헌신을 요구하고 따라서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자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예 동장에서 은장으로)을 결정할 때 기존의 기능을 계속 익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선택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다른 기능을 선택한다면 참가자는 자신의 새로운 경험의지평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동일한 활동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보다 높은 단계의 능력과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와 헌신의 정도

선택된 기능습득에 보내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참가자는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가자는 예를 들면 학교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활동에의 참가를 연기할 수도 있다.

강 의

모든 참가자는 자신이 선택한 기능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해야만 한다. 강사는 참가자의 활동을 지도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강사는 해당 활동과 관련된 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담당할 수 있다.

강사는 참가자의 활동에 관한 지식을 지도하고, 조언하고, 장려하고, 증진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강의는 보통의 공식적인 교실-강의실에서 규칙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행하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전개될 수도 있다.

평 가

참가자의 향상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능의 습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행해져야 한다. 해당 기능을 지도한 강사가 직접 평가를 행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평가자를 초빙할 수도 있다. 평가자는 그 기능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평가자는 참가자를 다음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헌신했는가
-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기능을 습득했는가
-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향상을 이루었는가

가능한 기능활동의 목록

- 일반적인 것 : 컴퓨팅, 캠핑장비의 제작, 요리, 드라마, 연극감상
- 예술 : 미술 및 건축감상, 회화, 페인팅, 사진, 조각
- 수집과 연구 : 정치·경제·사회와 관련된 자료·물품의 수집과 분류, 지역사회·역사·종교관련 조사 및 연구
- 커뮤니케이션 : 필름·영화제작, 외국어 학습, 대중연설, 독서, 작문
- 공 예 : 옷만들기, 가구제작, 바구니세공, 편물, 매듭, 금속·플라스틱 공예, 도예, 목각
- 음 악 : 악기연주, 음악감상, 합창 또는 독창

- 자 연 : 영농활동, 조경, 정원가꾸기, 애완동물기르기
- 레크리에이션 기능 : 체스, 낚시, 심판보기, 실내 게임
- 교통수단 관련 : 운전기능 습득, 자동차 정비, 보트제작, 행글라이딩

6. 육체적 레크리에이션

개 관

육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활동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 육체적 활동은 건강한 체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 육체적인 도전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 일단 흥미있는 육체적 레크리에이션에 접하게 되면 개인이 일생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그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문은 개인의 능력수준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행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에 노력함으로써, 육체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마치 전문 운동선수들과 같은 도전감을 맛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었거나 경험이 있는 성인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하에 자신이 선택한 육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습득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활동에 관한 보다 많은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수행능력의 향상과 보다 큰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참가자가 육체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올바른 테크닉을 익힐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행해져야 한다.

요 건

청소년들은 일단 활동을 선택한 뒤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동장 최소한 3개월
- 은장 최소한 4개월
- 금장 최소한 5개월

참가자는 활동참가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수행능력 향상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참가자는 또한 그들이 선택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요구하는 규칙과 안전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육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

다양한 범위의 육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선택이 가능하다. 참가자

는 여가활동 수업으로 팀 단위 또는 개인적으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는 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행해진다.

활동을 선택할 때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고 강사를 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어떤 활동을 선택할 것인가는 참가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는 스포츠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육체적 활동을 택할 수도 있다.

학교 단위의 스포츠 팀 참가는 학교밖에서 개인적으로 규칙적이고도 충분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앞서 설명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평가에 고려될 수 있다.

참여와 헌신의 정도

활동에 요구되는 정해진 시간규정은 없다. 청소년은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활동할 것이 요구된다. 투입된 시간의 양은 선택된 활동의 종류와 참가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학과수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활동은 규칙적인 수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가자는 학과수업 이외의 자유시간 중에 이루어진 규칙적인 참여와 헌신을 입증해야 한다.

강 의

각 참가자는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지도할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강사는 활동과정에서 참가자의 능력 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강사는 그 활동의 교사이거나 그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춘 사람, 또는 공식적인 자격증은 없더라도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강사는 참가자의 활동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강의는 정식으로 학교교실과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행해질 수도 있다.

수상 스포츠나 암벽등반과 같이 특별한 위험을 안고 있는 활동의 경우, 국가포상기구는 강사의 자격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도 있다. 안전문제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측면에서 적절한 경험이 있는 강사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평 가

참가자의 향상도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최소활동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강사가 직접 평가를 행할 수도 있으나 금강 레벨에서는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자는 육체적 활동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규정된 최소활동기간 동안 규칙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 활동에 처음 참가할 당시의 지식과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수행능력에 있어서 향상을 나타내었는가
- 기능, 건강, 위험요소, 테크닉, 규칙에 대한 이해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향상을 나타내었는가

육체적 레크리에이션활동의 목록

- 육상 및 관련 활동 : 육상운동, 체조, 보디빌딩, 오리엔티어링, 달리기
- 댄싱 : 발레, 볼룸, 디스코, 탭댄스
- 격기 : 유도, 카라테, 검도
- 라켓 게임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탁구
- 팀 게임 : 야구, 크리켓, 축구, 하키, 네트볼, 럭비, 배구, 수구
- 수상 스포츠 : 카누, 다이빙, 조정, 항해, 서핑, 수영, 수상스키
- 기 타 : 양궁, 볼링, 동굴탐험, 사이클, 펜싱, 골프, 핸드글라이딩, 승마, 스케이트보딩, 스케이팅, 스키, 역도, 레슬링, 요가

7. 지역사회 프로젝트

개 관

이 부분의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은 성숙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요 건

참가자는 최소한 4 일(4박) 이상 집을 떠나서 학교나 직장이나 단체에서 사귄 동료들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참가자의 사정에 따라서 외박일수가 4일이 넘고 같은 활동이나 훈련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서 1년 이내에 주말에만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기회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될 수 있다.

- 모험과 일반훈련과정
- 코치활동과 스포츠 활동과정
- 캠프나 아동, 청소년을 위한 활동 코스
- 운동장, 마을회관 건립과 같은 지역사회 프로젝트
- 병원, 캠프 등에서의 장애아동, 노인, 병약자 등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
- 자연보호 환경단체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프로젝트는 명확하고 의미있는 목적을 가져야 하고 참가자의 관심과 경험을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모험부문을 제외한 활동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의 활동들과 관련될 수도 있다.

평 가

평가는 참가자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활동과정을 과정을 관찰한 경험에 있는 성인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참가자는 다음의 측면에서 평가된다 :

- 개인적 기준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 책임의 수용
- 기간동안의 향상도

8. 지도자를 위한 노트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것인가 ?

청소년활동의 지도자가 포상계획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국가포상기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구가 없는 국가에서는 독립 실행조직에 신청할 수도 있다.

국가포상기구에서는 신청자가 프로그램의 기본원칙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활동 프로그램의 실행단위로 등록하고 활동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포상기구가 지역별 실행조직에 일정한 책임을 위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역별 실행조직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독립실행 조직

국가포상기구가 없는 나라에서는 청소년지도자가 개별 운영자로서 활동 단위를 조직할 수 있다. 개별운영자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개별운영자로서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양식에 관한 사본을 받고, 그로부터 직접 라이선스를 받을 수도 있다.

개별운영자가 여러명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사무국을 대표하여 그 나라에서의 활동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별 조정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개별운영자는 실질적으로 국가사무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규칙적으로 접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보고한다. 그는 금장 수상자격 부여를 제외한 자신의 모든 프로그램에 관해서 완전한 책임을 갖게 된다 : 금장 수상자격 부여는 국제사무국에 위임된다.

다음에 할 일은 ?

모든 활동단위의 지도자는 포상계획 활동 지침서를 필요로 한다.

포상계획에 관한 자료의 발간과 그 내용을 잠재적인 성인 협조자, 참가자와 청소년의 부모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인쇄물과 포스터를 국가사무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기 이전에 강의 등을 통해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 뒤 막상 그들의 활동을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불충분하다면 청소년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활동 지도자들은 또한 필요하다면 자신의 직장의 선임교사, 청소년단체 관리자 등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일단 주위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확보했다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활동기회와 자원을 조사해야 한다.

다음은 청소년들에게 설명할 차례이다.

청소년들이 즉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활동 프로그램 참가는 기록부의 발급과 더불어 시작되며 그 이전의 활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부모들에게 자녀가 하는 활동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 중 일부는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 평가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첫 시작은 동장 레벨의 10 ~ 12 명 정도의 작은 그룹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활동단위의 지도자들은 참가한 청소년들과 강사, 평가자들의 인적 사항과 그들의 참가실적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일단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되었으면, 참가자들의 향상도를 관찰하고 그들이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가자들을 돕고 지도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지만, 활동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참가자들 중 일부가 주어진 과정을 완수하면 공개 발표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활동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알리고 다른 청소년들의 참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활동 프로그램에 스킴에 참여한 성인들의 도움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리더 훈련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기 이전에, 포상계획의 기본철학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통해서만 프로그램은 원래의 의도대로 운영될 수 있다.

국가포상기구는 자국내에서의 리더 훈련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지도자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및 브리핑 코스가 정기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강사나 평가자들이 이와 같은 연수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도 적절한 강의와 지도를 위해 포상계획의 이념과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한다.

활동단위 지도자의 책임

- 청소년들이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준다
- 청소년들에게 기록장 및 다른 자료들을 배부한다
- 참가자들과 협력자들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 자기 지역의 활동지도자들과의 연락과 협조활동
- 포상자격의 인정과 공개발표회 주관
-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발간
- 참가자들의 안전과 복지 보장
- 자신이 운영하는 활동 프로그램이 일관되게 포상계획의 국제선언과 원칙,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

강사와 평가자

청소년 육성에 관심이 있고 활동 프로그램으로 채택될만한 활동에 관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강사나 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성인들이 강사나 평가자로 협력할수록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활동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적은 수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금씩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에 의하면 성인으로부터의 도움을 얻는 데에는 일반적인 자원봉사자 모집보다는 개인적으로 직접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특히 특별한 관심영역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도움을 요청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성인들로부터의 협조를 확보한 뒤에는 그들의 관심과 열성을 유지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전

참가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활동지도자들은 특히 육체적 레크리에이션과 탐험 부문의 강사와 평가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가 탐험활동을 착수하기 이전에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차원의 협조

활동지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다른 활동단위가 있다면 그들과 접촉하고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이들 단위는 학교나 교회를 토대로 하고 있거나 청소년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을 수도 있다. 지역 포상계획 위원회 또는 지원집단의 창설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도자의 역할 수행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지역 포상계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한 도시나 지역의 각 활동단위는 2~3개월마다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한다. 응급구조협회 또는 봉사클럽과 같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들도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의 목적은 그 지역 내에서 전개되는 포상계획 활동을 돕고 노력과 투장의 중복과 낭비를 막는 것이다 : 예를 들면 탐험훈련 과정은 각 단위들이 별개로 팀을 조직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연합 활동발표회의 개최 등 대중홍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경 비

대부분의 포상계획 활동 프로그램은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예컨대 탐험활동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경비를 필요로 한다. 활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신의 기록장을 구입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정한 참여의식을 부여할 것이다.

모든 청소년들은 공작 재료나 교통비 등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비가 부담이 될 경우 활동 그룹은 공동경

비의 부담을 위해, 또는 탐험 장비의 집단 구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홍보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포상계획에 대한 대중들의 폭넓은 인식은 활동 프로그램 참가를 촉진하고 협조자들을 모집하거나 활동단위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홍보자료는 국가포상기구에서 입수할 수 있다. 홍보자료는 포스터와 소책자, 비디오 테이프 슬라이드와 같은 시청각 자료, 정보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활동단위는 지역 또는 전국 신문과 라디오, TV 네트워크에 접촉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과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무국에서 매년 2회 발간하는 "Award World"라는 국제적인 잡지도 있다. 이것은 해당국가의 국가포상기구에서 입수할 수 있다.

장애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장애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가에 관한 사항은 "Challenge to the Individual"이라는 책자에 소개되어 있다.

포상계획 프로그램의 원칙과 기준은 자의적으로 변용될 수 없다. 모두 청소년들이 동일한 형식으로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청소년이 참가할 경우 특정부문의 조건에 한해서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기준을 낮춘다거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오직 개인의 장애를 보완해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Challenge to the Individual"에는 장애자의 활동 참여를 돕는 문제에 대한 조언과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통합운영하는 문제

· 포상계획 활동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경쟁하거나 그것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만약 청소년이 다른 자발적 활동(직장이

나 학교밖에서)을 수행하고 있고, 이 활동이 포상계획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포상계획 활동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다 : 예컨데, 어떤 탐험활동은 포상계획 탐험부문의 조건과 스카우트 배지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스카우트는 한가지의 모험활동을 수행한 뒤 이를 두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기록부는 평가자에 의해서 작성된다. 성공적인 수행실적만 기록될 수 있다. 만약 평가자가 참가자의 수행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그 부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을 지속하도록 조언을 받는다.

평가자의 보고는 참가자의 활동실적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하고 참가자가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활동지도자는 참가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항과 프로그램을 시작한 날짜를 기입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참가자가 활동 프로그램의 모든 부문에 걸친 요건을 완료하면 포상자격을 부여하기 이전에 그것을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활동 프로그램 운영주체마다 인정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규칙들을 갖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포상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 료 : 설문지

청소년 포상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당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청소년 포상제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자료분석의 작업을 거쳐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수립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오니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 9 5. 10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 TEL : 02-578-7921

응답요령

1. 여러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항은 문항의 번호위에 O 표해 주십시오.

(예 : 선생님의 현거주지는 ? 1) 서울 2) 광역시 3) 기타 시군부)

2. 의견을 직접 적어넣게 되어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빠짐없이 선생님의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 이 설문지는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가정하고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의 배경설명을 잘 읽으시고 본문 속의 사회자의 설명에 따라 응답란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배 경 설 명

지난 달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칭) "대한민국 청소년상"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일반 국민 대표 및 청소년관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곳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실무자들의 인선작업을 거쳐 총 50 여명의 준비위원들이 위촉되었다. 이들은 준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각 주제별로 실무진에서 미리 마련한 시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뒤 다수결로 결정되는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준비위원회 제 1차 회의는 1995 년 10 월 X 일, 100 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청소년개발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선생님께서는 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 회의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상”의 시행방안에 관하여 실무진에서 미리 준비한 시안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각 주제별로 준비된 시안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 “먼저 포상대상, 즉 어떤 청소년들에게 상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마련한 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

1. 포상대상 시안

- 제 1 안 : 예술, 체육,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자질을 발휘한 청소년
제 2 안 : 어려운 가정환경, 신체장애 등 불우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소년
제 3 안 : 평범하면서도, 행동이나 품성의 면에서 다른이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응 답 란

- 1.1 제 1 안(재능과 자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 1.2 제 2 안(불우한 환경)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 1.3 제 3 안(행동 및 품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 1.4 1, 2, 3 안중 어느 안이 다수결로 통과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 ()안
- 1.5 기타 이 시안들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보완사항, 문제점 또는 새로운 시안)을 적어주십시오. :

사 회 : “다음은 포상인원 배분방식에 관한 시안입니다. 각 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

2. 포상인원 배분방식 시안

제 1 안 : 각 시, 도별로 일정한 인원을 정해놓고 선발한다.

제 2 안 : 학생,근로청소년 등 청소년의 유형별로 일정인원을 정해 놓고 선발한다.

제 3 안 : 인원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응답란

2.1 제 1 안(시,도별 배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2.2 제 2 안(유형별 배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2.3 제 3 안(배분 없음)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2.4 1, 2, 3 안중 어느 안이 다수결로 통과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 ()안

2.5 기타 이 시안들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보완사항, 문제점 또는 새로운 시안)을 적어주십시오. :

사 회 : “다음은 포상내역, 즉 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마련한 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

3. 포상내역 시안

제 1 안 : 일정한 액수의 상금이나 장학금 또는 물품 등의 부상을 준다.

제 2 안 : 진학, 취업 등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3 안 : 수상 자체가 정신적인 보상이 되므로 별도의 부상은 주지 않는다.

응 답 란

3.1 제 1 안(상금, 물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3.2 제 2 안(제도적 혜택)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3.3 제 3 안(부상 없음)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3.4 1, 2, 3 안중 어느 안이 다수결로 통과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 () 안

3.5 기타 이 시안들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보완사항, 문제점 또는 새로운 시안)을 적어주십시오. :

사 회 : “다음은 포상부문에 관한 시안입니다. 각 시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

4. 포상부문 시안

제 1 안 : 체육, 예술, 학업, 근로 등 활동분야별로 대상자를 뽑아 시상한다.

제 2 안 : 효도, 봉사, 근검, 협동 등 가치덕목별로 대상자를 뽑아 시상한다.

제 3 안 : 별도의 시상부문을 규정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시상한다.

응 답 란

4.1 제 1 안(활동분야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4.2 제 2 안(가치덕목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4.3 제 3 안(부문 없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4.4 1, 2, 3 안중 어느 안이 다수결로 통과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 () 안

4.5 기타 이 시안들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보완사항, 문제점 또는 새로운 시안)을 적어주십시오. :

사 회 : “다음은 포상자의 추천방식에 관한 시안입니다. 각 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

5. 포상자 추천방식 시안

- 제 1 안 :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안 :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성인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안 :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자격있는 전문가들만이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응 답 란

5.1 제 1 안(청소년도 추천)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5.2 제 2 안(일반국민도 추천)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5.3 제 3 안(전문가만 추천)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5.4 1, 2, 3 안중 어느 안이 다수결로 통과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 ()안

5.5 기타 이 시안들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보완사항, 문제점 또는 새로운 시안)을 적어주십시오. :

사 회 : “다음은 포상자 심사위원단 구성방식에 관한 시안입니다. 각 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

6. 포상자 심사위원단 구성방식 시안

- 제 1 안 : 청소년들도 심사위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안 : 일반국민들도 심사위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안 : 청소년지도자, 교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만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응 답 란

6.1 제 1 안(청소년도 참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6.2 제 2 안(일반국민도 참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6.3 제 3 안(전문가로만 구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6.4 1, 2, 3 안중 어느 안이 다수결로 통과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 ()안

6.5 기타 이 시안들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보완사항, 문제점 또는 새로운 시안)을 적어주십시오. :

사 회 : “마지막으로 이 포상제도의 운영방식에 관한 시안입니다. 각 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

7. 제도 운영방식 시안

제 1 안 : 정부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한다.

제 2 안 : 공신력있는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한다.

제 3 안 : 이 포상제도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응 답 란

7.1 제 1 안(정부 직접운영)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찬 성

7.2 제 2 안(민간 위임운영)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반 대

7.3 제 3 안(별도 법인설립)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1) 반 대 2) 대체로 반대 3) 잘 모르겠다 4) 대체로 찬성 5) 반 대

7.4 1, 2, 3 안중 어느 안이 다수결로 통과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 ()안

7.5 기타 이 시안들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보완사항, 문제점 또는 새로운 시안)을 적어주십시오. :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오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번호에 O 표).

8.1 성 별	1) 남 2) 여
8.2 나이(만 나이)	1) 20 대 2) 30 대 3) 40 대 5) 50대 6) 60 대
8.3 최종학력	1) 중졸 이하 2) 고 졸 3) 대 졸 4) 대학원 졸업
8.4. 직 업	1) 청소년단체, 시설 종사자 2) 각급학교 교사 3) 회사원 (기업체, 은행 등) 4) 공무원 5) 자영업 (상업, 서비스업 등) 6) 학교에 재학중 7) 전문직 (의료, 법조, 연구직 등) 8) 현재 쉬고 있음 9)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8.5. 가족관계	1) 미 혼 2) 기혼 (또는 혼인 경험있음)
8.6 현거주지	1) 서 울 2) 광역시 3) 기타 시군부

– 122 –